

# 해외 보험동향 2020년 겨울호

| 총괄 김석영 (선임연구위원)

| 해외 보험동향 이상우 (수석연구원)  
이소양 (연구원)  
손민숙 (연구원)  
장윤미 (연구원)  
손지영 (연구원)



# ■ 목차

---

##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1. 기후 관련 금융 공시 태스크포스(TCFD) 2020 현황 보고서 / 1
2. 미얀마 보험시장 자유화 / 5
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회사 채무불이행 사태와 기업지배구조 변화 / 8
4. 코로나19와 영국 현금 사용 / 11

## II.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1.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험시장 진출 / 14
2. 미국 빅테크 기업의 건강보험시장 진출 / 16
3. 일본 후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징과 개선 방안 / 19
4. 중국인의 노후준비 현황 / 23
5. 중국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최근 동향 / 26

[특집] 2019년 베트남 보험시장 및 규제 현황 / 29

[특집] 세계 재보험 현황 / 37

[특집] 해외 판매채널: 중국, 대만 / 47

[부록] 해외 보험산업 통계 / 66



---

#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

## 1. 기후 관련 금융 공시 태스크포스(TCFD)<sup>1)</sup> 2020 현황 보고서<sup>2)</sup>

■ TCFD는 2017년 6월 기업<sup>3)</sup> 및 기타 기관이 보다 효과적인 기후 관련 금융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공시체계에 대한 최종 권고안<sup>4)</sup>을 발표하고, 2020년 10월 실행 현황에 관한 세 번째 현황 보고서를 발표함

○ TCFD는 2017년 이후 권고안 실행 현황에 대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행해 왔음

○ 이번 보고서는 각국 기업 및 국가기관 등의 TCFD 지지 현황 및 금융 공시 현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 관련 금융 공시와 관련하여 보다 일관성 있고 충실한 실행을 강조함

■ 2019년 이후 약 700개의 기관이 추가적으로 TCFD를 지지하였으며, 지지 기관의 수가 85% 증가하여 현재 1,500개의 기업 및 기관이 TCFD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1,500개 중 상당수는 TCFD 권고안을 실행하고 있거나, 기후 관련 금융 공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지지 기업 및 기관에는 시가 총액 12조 6,000억 달러의 기업 및 운용자산 150조 달러 규모의 금융회사 등 전 세계 1,500여 개 기업이 포함됨

- 1,500여 개 중 1,344개는 기업이며, 168개는 기타 산업 협회 및 정부 단체임

○ 지지 기업 및 기관의 75%는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속해 있으며, 전 세계 100대 공기업 중 약 60%가 TCFD를 지지하거나 권고안을 실행하고 있음

- 기업 및 기관의 국가 분포는 유럽(39%), 아시아 태평양(36%), 북미(20%), 남미(3%), 중동 및 아프리카(2%) 순임

---

1)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 TCFD(2020. 10. 29), "2020 Status Report: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3) 권고안에서 TCFD는 '기업(Compan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여기에는 공적 부채나 자산을 보유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연금제도, 기부금, 재단 등을 포함한 자산 운용자 및 자산 소유자가 포함됨

4) TCFD(2017. 6),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기업 및 기관 수별 상위 5개 국가는 일본(310개), 영국(219개), 미국(219개), 호주(76개), 캐나다(67개)임

■ TCFD를 지지하는 기업 및 기관 수의 증가와 함께 기업이 TCFD 권고안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투자자의 요구도 급격히 증가하였음

- 예를 들어 기후 행동 100+(Climate Action 100+)는 투자 유인책으로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이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조직되었음
  - 약 52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545개 투자자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별 분포는 유럽 34.8%, 북미 33.5%, 아시아 19.9%, 오세아니아 6.8%임
- 또한 상당수의 대형 자산 운용자와 자산 소유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TCFD 권고안을 따라 보고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투자 관행 또는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전 세계 110개 이상 국가의 규제 기관 및 정부, 중앙은행 및 감독자들도 금융 시스템 그린화를 위한 네트워크(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를 통해 TCFD 권고안에 따라 공공부채 또는 자본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해 금융 공시를 권장하고 있음

- 뉴질랜드 환경부(New Zealand's Ministry for the Environment)는 특정 상장사와 대형 금융기관에 기후 관련 금융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TCFD 권고안의 기준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TCFD 권고안을 '기후 관련 정보 보고 지침(Guidelines on Reporting Climate-Related Information)'에 포함하여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보고 요건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음
- 영국 금융당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특정 상장 기업들의 TCFD 권고안에 따른 공시 여부를 연례 재무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함
- 120개국 및 유럽연합(EU)이 2050년 온실가스 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다수 국가에서 기후 관련 금융 공시의 법제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규제 단일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회계기준 재단 이사회(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Foundation Trustee)가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에 대한 자문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하여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이 필수적임

■ TCFD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 및 국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발간된 재무보고서 1,700개를 검토하였으며, 소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TCFD 실행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함

-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 관련 금융 공시를 실행하는 기업 및 기관들의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TCFD 권고안에 따른 정보 공개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6%p 증가하였으며, 공개 기업 및 기관의 숫자뿐만 아니라 공개 및 보고의 질적 측면도 함께 개선됨
  - 그러나 '기후 변화가 사업 및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공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TCFD의 11가지 권고사항 전반에 대한 평균 공시 수준이 가장 높은 사업 분야는 에너지(40%) 및 자재·건축(30%)인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산업 분야는 권고안의 기업 경영 핵심요소 4가지 영역 중 '기업전략' 분야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가지 권고사항 중 6가지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 평균보다 높거나 동등하게 나타남(〈그림 1〉 참조)
-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업 전략의 탄력성'에 대하여 공개한 기업은 15개 중 1개로, 기타 권고사항들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 고객 및 수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자산 운용자 및 자산 소유자가 고객 및 수익자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적인 보고로는 불충분하며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함
- 전문가들은 권고사항 중 '기후 변화의 기업 및 사업 전략에 대한 영향'을 재무적 의사 결정에 가장 유용한 정보라고 인식함
- 전문가들의 기후 관련 금융 공시에 대한 인식의 우선순위는 TCFD의 권고안을 실행하는 기업과 입안자들에게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TCFD는 현황 보고서의 발표와 함께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 및 기후 관련 위험을 현재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과 금융 부문 미래 전망 지표에 대한 자문서를 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

〈표 1〉 보험산업 기후 관련 금융 공시 AI 검토 결과

(단위: %p, %)

기업경영 핵심요소	공개 권고사항	2017~2019년 변화율	TCFD 권고안에 따른 기업들의 공개 비율
지배구조	이사회 감독	2	2017 22% 2018 24% 2019 24%
	경영진 역할	9	2017 25% 2018 29% 2019 35%
기업전략	위험 및 기회	5	2017 44% 2018 43% 2019 49%
	조직 영향	4	2017 17% 2018 17% 2019 21%
	전략 탄력성	4	2017 4% 2018 5% 2019 8%
위험관리	위험 인식 및 평가 프로세스	9	2017 28% 2018 29% 2019 36%
	위험 관리 프로세스	9	2017 18% 2018 24% 2019 28%
	전반적인 위험 관리 통합	10	2017 16% 2018 17% 2019 26%
측정 및 목표	기후 관련 지표	6	2017 20% 2018 22% 2019 26%
	1,2,3 범위 온실가스 배출	1	2017 18% 2018 18% 2019 19%
	기후 관련 목표	4	2017 18% 2018 22% 2019 22%

주: 그림 내 점선은 전체 산업 평균 비율임

자료: TCFD(2020. 10. 29), "2020 Status Report: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2. 미얀마 보험시장 자유화

- 미얀마 보험시장은 미얀마국영보험공사(Myanmar Insurance)가 수년간 독점하던 구조였으나, 최근 보험시장 개방과 더불어 외국계 보험회사의 미얀마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sup>5)</sup>
  - 미얀마 보험시장은 기획재정산업부<sup>6)</sup> 산하 미얀마국영보험공사가 독점하던 구조에서 2012년 이후 현지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됨
  - 2019년 미얀마 금융규제부(FRD<sup>7)</sup>)는 6개의 합작회사와 5개의 단독 외국계 보험회사에 사업 허가를 승인함<sup>8)</sup>
    - 6개의 합작회사는 각각 3곳의 외국계-현지 합작 생명보험회사와 외국계-현지 합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됨<sup>9)</sup>
    - 5개의 단독 외국계 보험회사로는 영국의 Prudential, 일본의 Dai-ichi Life, 홍콩의 AIA, 미국의 Chubb, 캐나다의 Manulife가 있음<sup>10)</sup>
- 2020년 5월 미얀마 보험규제위원회(IBRB<sup>11)</sup>)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업을 허가하는 지침<sup>12)</sup>을 발표함<sup>13)</sup>
  - 새로운 형태의 보험업이란 산업보험(Industrial All Risk), 건설공사보험(Construction All Risk and Erection All Risk) 및 수탁인배상책임보험(Baliee's liability)을 의미함
  - 지침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미얀마 내 모든 손해보험회사와 미얀마국영보험공사는 전국 단위에서 이들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5559>

6) 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y

7) FRD: Financial Regulatory Department

8) <https://www.asiaadvisersnetwork.com/Article/aid/49379/Formal-insurance-licences-granted-to-foreign-insurers-in-Myanmar>

9) 합작 생명보험회사인 3개는 각각 ① Capital Life Insurance and Taiyo Life Insurance, ② Citizen Business Insurance and Thai Life Insurance, ③ Grand Guardian Life Insurance and Nippon Life Insurance임. 합작 손해보험회사인 3개는 각각 ① AYA Myanmar General Insurance and Sampo Japan Nipponkoa Insurance, ② Grand Guardian General Insurance and Toki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 ③ IKBZ Insurance and Mitsui Sumitomo Insurance임

10) 이들 외국계 기업은 완전 소유 자회사 형태로 생명보험 사업을 허가받았는데, 이는 미얀마 정부가 최초로 사업 승인한 외국계 완전 소유 생명보험회사임

11) IBRB: Insurance Business Regulatory Board

12) Directive 6/2020

13) <https://www.mmTimes.com/news/myanmar-permits-reinsurance-new-categories-general-insurance.html>

- 2020년 5월 미얀마 금융규제부(FRD)는 지침<sup>14)</sup>을 통해 재보험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였고, 이를 통해 현지 기업과의 경쟁을 유도함<sup>15)</sup>
  - 지침을 통해 미얀마 내 모든 보험회사가 다국적 보험회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미얀마 정부는 이를 통해 리스크를 다각화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 미얀마 정부는 또한 다국적 재보험회사 100% 전액 출자 자회사 또는 외국계 재보험회사의 지점이 미얀마에 설립되는 것을 포함하여 합작 보험 중개 사무소를 설립하는 안 또한 고려 중임
  - 미얀마에서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재보험시장 진입은 초기 단계이나, 이 같은 조치는 미얀마 시장에서 보험산업을 확대하고 보험침투율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미얀마에서 국경간재보험회사(CBR<sup>16)</sup>)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sup>17)</sup>
  - 외국 자체 관할권에서 재보험 사업 면허를 소유해야 함
  - S&P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용 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함
  - 지급여력 마진(Solvency Margin) 최소 기준 또는 재정능력(Capacity) 적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회계연도 동안 다음의 '의무출재계약한도'(Compulsory Cession Limits)가 적용됨(단, 미얀마 보험업규제위원회가 면제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14) Directive 4/2020

15) <https://www.asiaadvisersnetwork.com/Article?aid=72705>

16) 국경간재보험회사(Cross Border Reinsurer)는 ① 외국의 자체 관할권에서 재보험 사업 면허를 가진 보험회사, ② 미얀마에서 보험 또는 재보험회사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재보험회사, ③ 미얀마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 혹은 외국 재보험회사와 함께 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계 재보험회사 지점으로 정의됨

17) <https://www.asiaadvisersnetwork.com/Article?aid=72705>

〈표 2〉 미얀마 국경간재보험회사(CBR) 자격에 관한 출재계약한도 기준

S&P 및 기타 상응 기관의 국경간재보험회사(CBR) 신용등급	국경간재보험회사(CBR)당 전체 출재계약 한도 (Overall Cession Limits)
A+ 초과	50%
BBB+ 초과 A+ 이하	40%
BBB 및 BBB+	20%

주: 1) 위의 수치는 미얀마 외에서 수재한 총 재보험 수입보험료를 기반으로 계산함

2) 국경간재보험회사(CBR)에 대한 출재계약 한도액이 미얀마국영보험공사의 보유 이후인지의 여부는 불명확함

자료: Asia Advisers Network(<https://www.asiaadvisersnetwork.com/Article?aid=72705>)

■ 미얀마 정부는 보험산업을 개방하면서도 미얀마국영보험공사에 의무출재계약한도와 프론팅 재보험계약과 같은 특권을 부여함<sup>18)</sup>

○ 재보험 규정에 따르면 모든 미얀마 보험회사·재보험회사 및 외국계 재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10%까지 미얀마국영보험공사에 출재해야 함

- 만일 미얀마국영보험공사가 전가된 리스크에 대한 수재를 거절할 경우, 이 같은 잔여 리스크는 국경간재보험회사(CBR)를 통해 출재될 수 있음

○ 미얀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계 기업은 프론팅 보험계약을 통해 외국계 보험회사에 접근 가능하지만, 미얀마국영보험공사를 앞세워서만 가능함

- 프론팅 계약이란, 외국계 보험회사가 국내보험회사를 앞세워 우선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을 통해 다시 인수하는 계약을 의미함

- 즉, 1차 보험회사인 미얀마국영보험공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보험회사 역할을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받고 외국계 재보험회사와의 재보험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하는 방식임

- 재보험 규정에 따르면 모든 미얀마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는 재보험 계약 시 국경간재보험회사(CBR)와 프론팅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기업휴지보험(BI), 전문인배상책임보험(PI), 임원배상책임보험(D&O), 사이버보험과 같은 기타 일반보험 상품은 현재 미얀마 현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지 않으며, 금융규제부(FRD)는 이들 상품 운용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임<sup>19)</sup>

18) <https://www.asiaadvisersnetwork.com/Article?aid=72705>

19) <https://www.asiaadvisersnetwork.com/Article?aid=72705>

- 미얀마국영보험공사가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이 요구하는 유형의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외국계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보험 계약을 추진할 수 있으나 미얀마국영보험공사를 통해서 프론팅해야 함
  - 해외기업은 미얀마국영보험공사와 프론팅 계약을 통해 해외 재보험회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미얀마 금융규제부(FRD)가 이를 모니터링 함

### 3.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회사 채무불이행 사태와 기업지배구조 변화

- 2013년 인도네시아의 국영 상호보험회사 AJB Bumiputera 1912가 지급보험금 증가에 따른 재정 위기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이후 인도네시아 대형 보험회사의 디폴트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sup>20)</sup>
  - 동 사는 2018년과 2019년 말 각각 20.7조 IDR(Indonesian Rupiah)(약 15억 달러)와 23조 IDR(약 1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이 밖에도 2013년 생명보험회사 Asuransi Jiwa Bumi Asih Jaya는 재무건전성 문제로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감독청(OJK<sup>21)</sup>)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취소 받았고, 이후 2015년 파산 소송이 제기됨
- 2020년 1월 초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국영 생명보험회사인 Asuransi Jiwasraya가 유동성 문제로 일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함<sup>22)</sup>
  - 동 사는 2018~2019년 만기 예정이었던 보험 상품의 보험금 13.2조 IDR(약 9억 달러)를 계약자에게 지불하지 못함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정부 실무위원회의 조사에서 동 사는 2019년 감사 시 27.2조 IDR(약 19억 달러)의 마이너스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인

20)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49846/type/eDaily/Indonesia-Govt-and-lawmakers-act-on-state-owned-insurers> 및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73171&Type=eDaily>

21)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2)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74229/Type/eDaily/Indonesia-Defaults-of-life-insurers-dampen-sector-growth>

도네시아 정부가 규제 금융에 나섬

- 인도네시아 당국은 위와 같은 부실의 원인으로 보험회사의 잘못된 가격 책정, 무모한 투자 활동, 유동성 문제, 기업 지배구조를 결점으로 꼽고 있음

■ 이 밖에도 최근 여러 인도네시아 보험회사들이 투자 리스크 관리 부실 문제로 잇따른 디폴트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조사됨<sup>23)</sup>

- 2020년 초에는 민간생명보험회사인 Asuransi Jiwa Kresna Life가 정기 예금 금리 5~7%를 초과하는 고정 투자 수익률 7.75~9.75%를 3~24개월간 지급하는 보험의 보험금 6조 IDR(약 4억 달러)를 지불하지 못함
- 민간보험회사인 Asuransi Jiwa Adisarana Wanaartha(WanaArtha Life)는 국영보험회사인 Asuransi Jiwasraya의 부패 혐의 수사에 연루되어 현재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s Office)에 의해 증권 계정이 차단된 상황임
- 이 밖에도 Asuransi Jiwa Kresna Life는 계열사에 대한 투자 한도인 25%를 초과하여 투자함으로써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나, 팬데믹 기간동안 악화된 시장여건으로 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당국은 2020년 8월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동사의 신규 사업 추진을 금함
- 인도네시아 경찰, 군인, 국방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및 연금을 관리하는 Asabri사는 큰 손실에 직면한 상황으로, 인도네시아 감사위원회(BPKRI)에 따르면 이들의 2019년 순손실액 6.21조 IDR(약 4.4억 달러)는 주식 및 뮤추얼펀드 투자 실적 악화에서 기인함
- 신용평가사인 Fitch는 디폴트된 인도네시아 보험회사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보험회사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1월 국영금융기관인 BPUI<sup>24)</sup>를 인도네시아 국영보험 지주회사로 임명한 바 있음<sup>25)</sup>

-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영보험회사 Asuransi Jiwasraya 디폴트 상황에 대한 당국의 재정 지원책의 하나로 기업 재구조화 정책에 따른 것임

23)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74229&Type=eDaily#>

24) Bahana Pembinaan Usaha Indonesia

25)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61553/type/eDaily/Indonesia-Holding-group-structure-strengthens-state-owned-insurers>

- 기존에 시스템 리스크 관리는 주로 은행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국영 보험회사 부실 사태로 인해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정책에 반영됨
- 국영 보험회사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운용 효율성이 개선되고 위험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영보험회사 간 현금 흐름 및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며 전략적 파트너 구축 또한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됨

■ 2020년 10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BUMN<sup>26</sup>)는 국영 보험금융서비스 지주사인 인도네시아파이낸셜그룹(IFG: Indonesia Financial Group)을 출범함<sup>27</sup>)

- IFG는 BPUI의 변경된 이름으로 BPUI는 국영기업부가 소유하고 있는 보험지주회사임
  - IFG는 금융·자본 시장, 생명·손해·건강보험과 관련한 9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9개 자회사로는 Jasa Raharja, Jaminan Kredit Indonesia(Jamkrindo), PT Asuransi Kredit Indonesia(Askrindo), Asuransi Jasa Indonesia(Jasindo), Graha Niaga Tata Utama, Bahana TCW Investment Management, Bahana Sekuritas, Bahana Artha Ventura 및 Bahana Kapital Investa가 있음
- IFG는 IFG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서비스를 중점 운영하는 IFG Life를 설립하였는데, 동사는 재정 상황이 악화된 국영 생명보험회사인 Asuransi Jiwasraya의 사업을 인수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IFG를 통해 금융 부분 특히 보험, 투자, 보증 부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실천할 예정임
  - 보험 및 언더라이팅 부문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보험 생태계에 투자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26) 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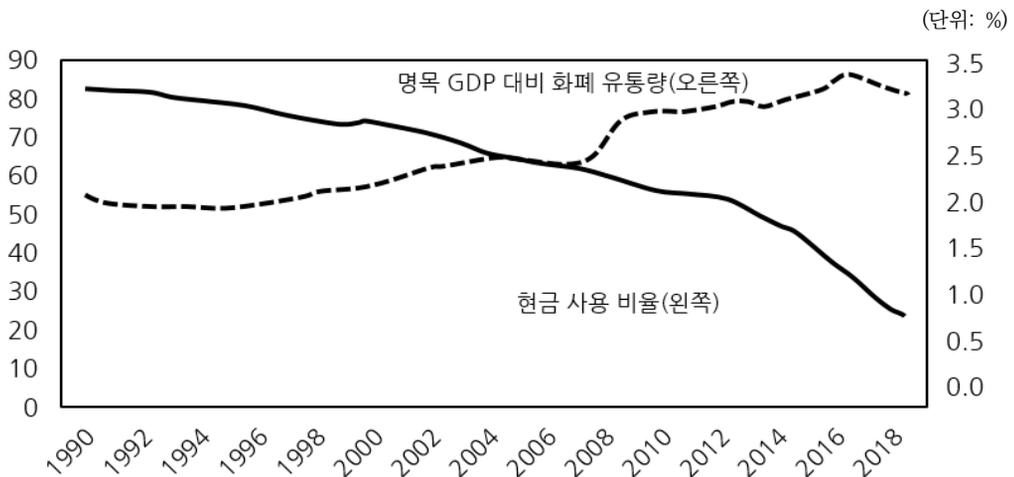
27)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74453/type/eDaily/Indonesia-State-owned-insurance-sector-gets-a-makeover-with-new-holding-company>

#### 4. 코로나19와 영국 현금 사용<sup>28)</sup>

■ 현금은 일상생활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교환의 매개체로서 사용되거나 자산의 보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현금의 교환 매개체 역할이 크게 감소하였음

○ 10년 전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다양한 결제 수단 중 현금을 사용하는 비율은 60%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23%로 10년간 61.7% 감소하였음

〈그림 1〉 영국의 현금 사용 비율 및 명목 GDP 대비 화폐 유통량 변화 추세



자료: BOE(2020. 11. 24), "Cash in the time of Covid"

■ 코로나19로 현금 사용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 소비자들의 쇼핑·결제 방식이 변화함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 9월 영국 소매 지출의 28%가 온라인 쇼핑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19%) 대비 온라인 쇼핑 비중이 증가하였음

- 페이세이프<sup>29)</sup>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응답자들의 21%가 온라인 쇼핑이 처음이라고 응답함

28) BOE(2020. 11. 24), "Cash in the time of Covid"

29) Paysafe(2020. 5. 4), "Over half of UK consumers have tried a new payment method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 바이러스의 전파 우려로 소비자들의 쇼핑 방식 및 결제 방식 선호도가 변화하였으며, 소매업자들 또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권고에 따라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였음

- 온라인 결제회사 페이세이프(Paysafe)의 설문조사<sup>30)</sup>에 따르면 전년 대비 응답자의 56%가 비접촉식 카드 사용을 선호하며, 71%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하여 현금 사용 비율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함
- 응답자들은 현금 사용 감소의 주요 원인이 소매업자의 현금 결제 거부(44%) 및 현금 사용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35%)라고 응답함

■ 영국은행은 지폐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일상생활에 비해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구는 종이 지폐 및 폴리머 지폐,<sup>31)</sup> 플라스틱, 스테인리스스틸에 감염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표면상 바이러스 잔존량을 살핌
- 바이러스 투여 후 1시간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5시간 경과 후 바이러스 잔존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6시간 경과 후 종이 지폐 및 폴리머 지폐상의 잔존량은 초기 수치의 5% 이하로 감소하였음
- 반면 플라스틱 및 스테인리스스틸 표면상의 바이러스 잔존량이 더 높게 나타나, 지폐보다는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체를 만지는 것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남

30) Paysafe(2020. 5. 4), "Over half of UK consumers have tried a new payment method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31) 영국은 환경과 위생, 위조 방지를 위해 종이 지폐를 폴리머 지폐로 교체하고 있음. 현재 5파운드와 10파운드는 폴리머 지폐를, 50파운드의 경우 종이 지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20파운드의 경우 종이 지폐와 폴리머 지폐를 혼용하고 있음. 2021년 50파운드 단위의 폴리머 지폐가 출시될 예정임

〈표 3〉 6시간 경과 후 표면상 코로나바이러스 잔존량

(단위: %)

구분	'기침' 가정 모델	'재채기' 가정 모델
신권 종이 지폐	2	<1
사용한 종이 지폐	2	<1
신권 폴리머 지폐	3	<1
사용한 폴리머 지폐	5	<1
플라스틱	7	<1
스테인리스스틸	17	<1

자료: BOE(2020. 11. 24), "Cash in the time of Covid"

■ 코로나19의 중장기적 영향 및 현금 사용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화폐의 원활한 공급 및 금융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코로나19 이후의 현금 수요를 파악하기에는 변수가 많음

○ 향후 현금에 대한 수요는 결제 방식 및 보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특히 어려움

- LINK의 설문조사<sup>32)</sup>에서 응답자의 76%가 코로나19로 인해 현금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설문조사<sup>33)</sup>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향후 6개월간 현금 대신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가 일반적인 카페, 펍 등에서의 현금 사용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가 장기적인 현금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으나 과거의 현금 수요 추세는 미래 추세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팬데믹 이전 또는 현재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32) LINK(2020. 4. 28), "Coronavirus Crisis means cash use down but UK still withdrawing £1billion from ATMs each week"

33) ONS(2020. 7. 3), "Coronavirus and the social impacts on Great Britain: 3 July 2020"

---

## II.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

### 1.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험시장 진출

-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Tesla는 계열사인 Tesla Insurance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Tesla 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음<sup>1)</sup>
  - Tesla Insurance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 및 상해, 차량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차량 도난 및 교통사고 이외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상에 대한 추가적 보상을 제공함
  - 현재 Tesla Insurance는 캘리포니아 주의 Tesla 차량(Model S, Model X, Model 3, Model Y, Roadster) 소유자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제공 범위를 미국의 다른 주로 확장할 예정임
- Tesla Insurance는 자사의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보험 회사에 비해 보험료를 최대 30% 절감함
  - 일부 보험회사들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Tesla 차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Tesla Insurance는 차량 카메라, 레이더 등의 센서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위험과 수리비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운전 기록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최대 30%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제공할 수 있음
- Tesla 차량 운전자는 Tesla Insurance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 행동과 데이터의 상호작용으로 장기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1) Tesla Insurance 홈페이지(<https://www.tesla.com/insurance>)

- Tesla 차량 운전자는 인터넷 사이트<sup>2)</sup>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보험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Tesla Insurance에 가입한 운전자는 안전 운행,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운전자 행동과 데이터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Tesla는 차량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Tesla의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Tesla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sup>3)</sup>
- Tesla는 낮은 보험료를 통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을 갖춘 차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소비자의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임
-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GM(General Motors) 또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할 것을 발표함<sup>4)</sup>
- GM은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기술인 ‘OnStar’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차보험인 ‘OnStar Insurance’ 출시를 자체 보험 사업부를 통해 발표함
  - OnStar Insurance는 개별 운전자의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디지털 보험을 제공할 예정임
- 자동차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차량 자체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운전자와 보험회사 간의 정보 전달 과정을 단순화하였으며, 각종 수수료의 절감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전통적인 보험회사가 성별, 연령, 거주지, 신용기록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였음
  - 반면,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험은 운전자의 운전 기록, 운전 습관 등 차량으로부터 직접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던 수수료를 절감하여 보험료를 낮추었음

2) <https://www.tesla.com/insurance>

3) Insurance Business(2019. 9. 6), "Tesla and Insurance-Everything you need to know"

4) GM(2020. 11. 18), "General Motors Aims to Transform the Auto Insurance Industry with OnStar Insurance"

- 보험업계는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음<sup>5)</sup>
  - 미국 보험회사 Allstate는 자동차 제조업체 Ford사의 일부 자동차 모델에 한하여 차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을 제공함
  - 보험회사 Nationwide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Toyota의 자회사인 Toyota Insurance Management Solutions와 협력하여 차량 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TIMS BrightDrive 프로그램을 출시함<sup>6)</sup>

## 2. 미국 빅테크 기업의 건강보험시장 진출

-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Big Tech) 기업 Google, Amazon, Facebook, Apple의 직·간접적 건강보험 분야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 빅테크 기업들은 보험시장에서 보험 유통 플랫폼이나 디지털 기술 개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막대한 데이터와 자체 플랫폼을 통해 보험시장에 직접 진출할 가능성 또한 보이고 있음
  -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데이터와 분석능력, 자체적인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 직접 보험상품을 배포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는 단순한 상품 제공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 Google의 모회사인 Alphabet 산하 생명과학 기업 Verily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사업에 진출하였음<sup>7)</sup>
  - Verily는 글로벌 재보험회사인 Swiss Re의 투자를 받아 Coefficient Insurance라는 자회사를 설립함
    - Coefficient Insurance는 자가 보험을 통해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이 특정금액 이상의 보험금 청구를 받는 경우 초과금액을 지불하는 Stop-Loss보험을

5) Insurance Business(2020. 5. 4), "Ford to Share Customer Data with Allstate"

6) Nationwide(2020. 2. 24), "Partnership Between Nationwide and Toyota Features New Telematics Solution"

7) Bloomberg(2020. 8. 25), "Alphabet's Verily Plans to Use Big Data for Health Insurance"

판매할 예정임

○ Coefficient Insurance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고용주가 직면한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함

■ Amazon의 웨어러블 기기인 Amazon Halo band는 미국의 보험회사 John Hancock Insurance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접목되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및 보험 가입자의 건강 관리에 활용되고 있음<sup>8)</sup>

○ Amazon Halo Band는 AI 기반 건강관리 웨어러블 기기로 개인의 활동량, 수면, 신체, 어조(Tone)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생활 습관, 운동을 제안함

○ John Hancock Insurance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인 John Hancock Vitality Program은 Amazon Halo band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신체 활동에 대한 포인트, 숙면에 대한 포인트 등 보상을 제공함

■ 또한, Amazon은 미국의 금융그룹 JP Morgan Chase, 미국의 보험그룹 Berkshire Hathaway와 협력하여 각 사의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건강보험 ‘Haven’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자사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민간에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sup>9)</sup>

○ Amazon, JP Morgan Chase, Berkshire Hathaway는 ‘Haven’을 통해 각 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우수한 품질의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함

○ Amazon은 자체적인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바탕으로 미국 내 건강보험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에 대한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조사하는 등 Haven의 서비스를 Amazon 플랫폼 이용자에게도 확대할 가능성을 보임

■ Facebook은 자회사인 WhatsApp을 통해 인도의 금융회사인 ICICI Bank, HDFC Bank와 제휴하여 보험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sup>10)</sup>

○ Facebook은 전 세계 월간 사용자가 27억 명에 달하며, 사용자 당 약 52,000개의 속성

8) John Hancock(2020. 8. 27), “Amazon and John Hancock Announce Strategic Collaboration Aimed at Helping Customers Improve Their Health and Wellness”

9) Haven 홈페이지(<https://havenhealthcare.com/>)

10) Reuters(2020. 7. 22), “Facebook’s WhatsApp to partner with more Indian banks in financial inclusion push”

이 수집되어 있어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및 사업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WhatsApp은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은행 잔고, 공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WhatsApp은 향후 낙후된 지역, 저임금 노동자에게 보험, 소액 신용 대출, 연금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함

■ Apple은 개인 건강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워치인 Apple Watch를 통해 사용자가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습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험회사와 제휴하여 이를 건강보험에 활용하고 있음<sup>11)</sup>

- Apple Watch 사용자는 심박수 및 활동량 측정, 낙상 감지 센서, 심장 부정맥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통해 건강 상태와 습관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미국의 보험회사 United Healthcare는 Apple Watch를 활용하여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Mo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함<sup>12)</sup>
- Apple은 Medicare 플랜 제공 업체와 협의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Apple Watch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처럼 빅테크 기업은 기존의 보험회사에 비해 막대한 데이터와 기술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기존 보험산업의 낮은 마진율, 업계 경험과 전문지식의 부족, 보험 소비자의 낮은 신뢰 등 보험시장 진출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

- 건강보험은 직접적으로 보험 소비자의 재정, 건강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관련 규제에 직면하게 됨
- 많은 보험회사들이 낮은 마진율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빅테크 기업의 기대 수익에 미치지 못함
- 기존의 보험회사에 비해 업계 경험과 전문지식의 부족한 점은 보험 소비자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1) Forbes(2019. 1. 16), “Do You Really Want Your Insurer Buying You An Apple Watch?”

12) CNBC(2018. 11. 14), “A Giant Insurer is Offering Free Apple Watches to Customers Who Meet Walking Goals”

### 3. 일본 후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징과 개선 방안<sup>13)</sup>

■ 일본은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sup>14)</sup>의 교통사고 증가 추세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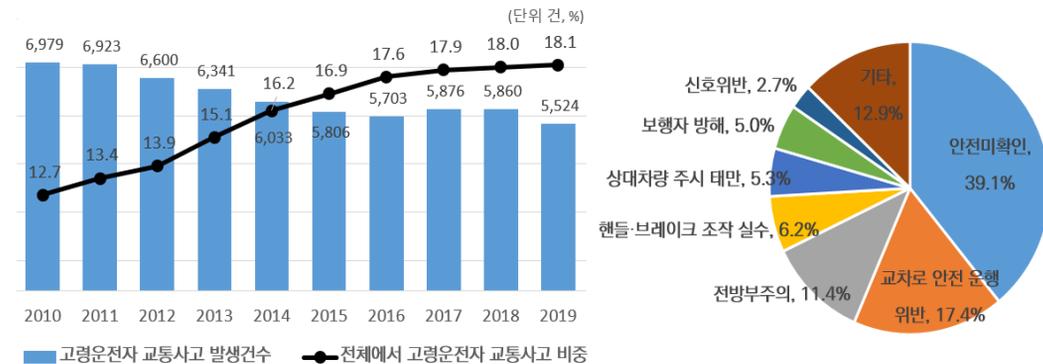
○ 이에 최근 일본에서 주목 받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망사고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고 방지를 위한 보험업계의 개선 방안을 살펴봄

■ 전체 운전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비중은 2010년 12.7%에서 2019년 18.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다만,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6,979건에서 2019년 5,524건으로 감소함

○ 이 중에서 후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망사고는 2019년에 401건이며, 전체 사망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로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를 차지함

〈그림 1〉 일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현황 및 사고 원인



자료: 日本警視廳(2020), “交通事故統計”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원인은 안전 미확인(39.1%)의 비중이 가장 큼

○ 다음으로 교차로 안전 운행 위반(17.4%), 전방 부주의(11.4%), 핸들·브레이크 조작 실수(6.2%), 상대차량 주시 태만(5.3%), 보행자 방해(5.0%), 신호위반(2.7%)의 순임

13)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2020. 9), “高齢運転者の事故が多い理由”를 기초로 작성함

14) 일본은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차별화된 고령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구분하고 있음

○ 이 중에서 후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주요 원인은 핸들·브레이크 조작 실수, 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와 안전 운전 주의의무 태만이 대부분임

- 특히, 후기 고령운전자가 운행 중에 상대방 차량이나 보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교통사망사고 중에서 약 42%는 해질녘에 전조등(Head Lamp)이 꺼져 있는 상태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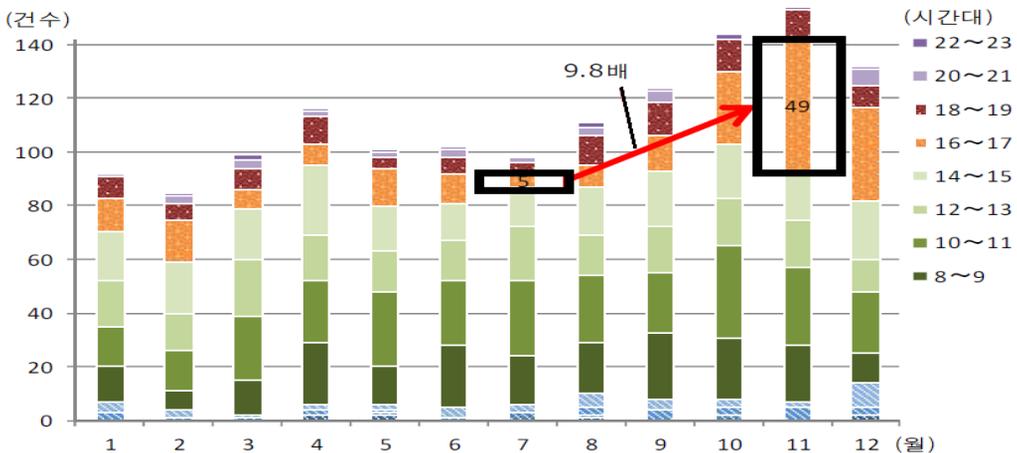
■ 최근 5년간 자동차배상책임보험 통계 분석 결과 후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망사고는 가을과 겨울이 많고, 해질녘 전후 1시간대가 높음

○ 계절별로는 가을과 겨울(9~12월)이 월 120건 이상으로 다른 계절에 비하여 높고, 16~19시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11~12월의 해질녘 시간대 비중이 가장 높는데 11월 16~17시(해질녘 시간대)의 경우 7월 동 시간대보다 9.8배 높음

○ 고령운전자의 보행인 사망사고는 해질녘 시간대가 다른 시간대에 비하여 2.0배 높고, 이 중에서 도로 횡단(무단 횡단 포함) 사망 비중이 80%를 차지함

〈그림 2〉 일본 후기 고령운전자 가해 사망사고 월·시간대별 건수



자료: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2020), “高齢運転者の事故が多い理由”

■ 고령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계절별 어두워지는 속도에 시각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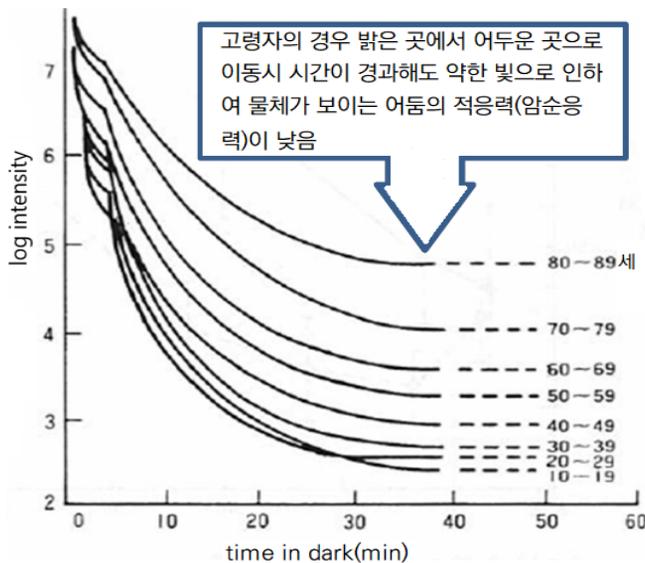
○ 일본은 가을부터 겨울 동안 해질녘 시간대에 밝기 변화가 크며, 일몰 후에는 짧은 시간에 어두워지는 현상이 뚜렷함

- 특히, 일몰 후 박명(Twilight)<sup>15)</sup> 시간이 하지(夏至)와 9~11월이 각각 약 100~110분, 85~95분으로 겨울에 가까울수록 어두워지는 속도가 빨라짐
- 또한, 일몰 시각이 7월은 19시 경인데 비해 11월은 16시 30분경으로 약 2시간 30분이 빨라짐

■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른 시각 기능 저하는 고령운전자가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조기 발견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교통안전학회 발표(1984년)에 의하면 시력 1.0 이상의 20대와 70대를 대상으로 암순응력(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 시 시력)을 테스트 한 결과 고령자의 야간시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야간시력이 20대가 평균 0.8이고, 70대 이상의 경우 평균 0.2~0.3으로 나타남

〈그림 3〉 고령과 암순응력(Dark Adaptation as a Function of Age) 연구결과



자료: 石橋富和(1983);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2020)에서 재인용함

- 이는 고령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시간 어두운 곳에 머무르면 동공이 작고 동공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 청년기에 비해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임

15) 일몰 후에도 어둡지 않고 어느 정도 밝아 있는 상태를 의미(기상학용어사전)함

- 시야각의 경우에도 일반적 성인의 경우 평균 약 200도이지만, 고령자의 경우 약 160도로 좁아 시각에 장애를 줌

〈표 1〉 고령자의 해질녘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시각 장애 사례

노화에 의한 시각 기능 저하 예	고령자가 걸리기 쉬운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시력 저하</li> <li>· 암순응(Dark Adaption) 소요시간 증가</li> <li>· 노인성 동공 축소 현상</li> <li>· 시야각 축소 현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내장</li> <li>· 녹내장</li> </ul>

자료: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2020), “高齢運転者の事故が多い理由”

■ 백내장 등 고령자의 안구 질병은 상대 차량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을 심화시킴

- 일본 안과학회에 의하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약 100%가 백내장 상태에 있으며, 70세 이상의 약 10%가 녹내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16)</sup>
- 백내장은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거나 이중으로 겹쳐 보이고, 눈부심 현상 등으로 시력 저하의 원인임

■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이러한 특징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질녘 운전 시 고령운전자의 행동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야간 차량 속도를 줄이고, 보행로와 도로 가장자리 주행 시 주의할 것
- 둘째,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시 자신의 야간시력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자신의 신체상태 이해를 기초로 주의 운전할 것
- 셋째, 해질녘 시야 확보, 상대 차량 및 보행자에게 운행 자동차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전조등을 해질녘 1시간 전에 켜고 운행할 것
- 넷째, 주간 어두움 감지 시 자동 점등 기능이 있는 오토 라이트를 작동할 것
- 다섯째, 야간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상대 차량 또는 보행자 위치 인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향·하향등을 적절히 활용할 것

16) 公益財団法人 日本眼科学会 홈페이지

#### 4. 중국인의 노후준비 현황<sup>17)</sup>

■ 중국인의 노후준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은퇴자가 노후준비를 실행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했는데, 이는 은퇴자의 노후준비 현황과 비교할 때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비은퇴자 중 노후준비를 생각한 적이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비율은 64%를 기록했으며 노후준비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비율은 20%를 기록함
- 비은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실행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지만 50~59세 비은퇴자 중 노후준비를 실행했다는 응답 비율은 25%에 미치지 못함
- 비은퇴자와 달리 은퇴자의 약 70%는 노후준비를 실행했다고 응답했음

〈표 2〉 비은퇴자 및 은퇴자의 노후준비 현황

구분	내용
비은퇴자	생각한 적이 없음(19.6%), 생각한 적이 있지만 실행하지 않았음(64.4%), 초보적인 노후준비를 했음(14.5%), 완벽한 노후준비를 했음(1.4%)
은퇴자	생각한 적이 없음(5.3%), 생각한 적이 있지만 실행하지 않았음(25.3%), 초보적인 노후준비를 했음(36.4%), 완벽한 노후준비를 했음(33.0%)

■ 은퇴 후의 기대 노후소득이 은퇴 전 소득의 50~100%에 도달해야 된다는 비은퇴자의 응답 비율은 68%를 기록했는데, 이는 은퇴자의 노후소득 분포와 비슷함

- 비은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후의 기대 노후소득이 은퇴 전 소득의 50~100%에 도달해야 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짐
  - 비은퇴자의 은퇴 후 기대 노후소득이 은퇴 전 소득의 50~100%에 도달해야 된다는 응답 비율은 40~59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은퇴자의 실제 노후소득이 은퇴 전 소득의 50~100%를 차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70%를 기록했는데 이는 비은퇴자 은퇴 후 기대 노후소득 수준과 비슷함
  - 은퇴 후 노후소득이 은퇴 전 소득의 50~100%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은퇴자 비율도 68%를 기록함

17) 본 글은 중국 칭화대학교 산하 노령사회연구센터에서 발간된 “중국인 양로준비 보고서(2020)”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작성됨

- 한편, 비은퇴자 중 78%가 은퇴 후 실제 노후소득이 기대 노후소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비은퇴자가 노후소득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3〉 비은퇴자의 기대 노후소득 및 은퇴자의 실제 노후소득 분포

구분	200% 이상	100~200%	75~100%	50~75%	50% 이하
비은퇴자 (기대 노후소득/은퇴 전 소득)	5.6%	15.3%	36.5%	32.6%	10.0%
은퇴자 (실제 노후소득/은퇴 전 소득)	2.4%	11.3%	34.2%	35.9%	16.1%

- 비은퇴자의 노후자산은 공적연금제도인 기본양로보험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은퇴자의 다양한 노후자산 소유현황과 비교할 때 노후자산 배분구조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비은퇴자의 기본양로보험 소유 비율은 79.1%로 높은 반면, 부동산(20.4%), 은행저축(28.1%) 및 기업연금(25.1%) 등의 소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은퇴자는 기본양로보험(46.5%), 기업연금(40.6%), 은행저축(30.5%), 주식(26.4%) 및 부동산(20.3%) 등의 다양한 노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

〈표 4〉 비은퇴자 및 은퇴자의 노후자산 배분현황

구분	내용
비은퇴자	기본양로보험(79.1%), 부동산(20.4%), 은행저축(28.1%), 기업연금(25.1%), 은행의 자산관리상품(19.7%), 주식(19.2%), 상업양로보험(19.1%), 양로목표펀드(7.7%), 변액보험(4.9%), 신탁이나 사모펀드(2.5%), 기타(2.3%)
은퇴자	기본양로보험(46.5%), 부동산(20.3%), 은행저축(30.5%), 기업연금(40.6%), 은행의 자산관리상품(19.0%), 주식(26.4%), 상업양로보험(8.0%), 양로목표펀드(16.9%), 변액보험(15.2%), 신탁이나 사모펀드(4.7%), 기타(3.3%)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은퇴자나 은퇴자의 해당 자산 활용비율을 의미함

- 비은퇴자의 노후준비 어려움은 전문지식 부족(67%), 금융상품 선택의 어려움(47%), 노후자산의 관리시간 부족(38%) 및 은퇴 관련 금융상품 부족(37%) 순으로 나타났음
- 비은퇴자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전문지식 부족 문제가 점점 개선되지만 금융상품 선택의 어려움, 노후자산의 관리시간 부족 및 은퇴 관련 금융상품 부족 문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음

는 것으로 나타남

- 비은퇴자처럼 은퇴자도 은퇴 관련 금융상품 부족(46%), 노후자산의 관리시간 부족(45%), 금융상품 선택의 어려움 및 전문지식 부족(39%)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 관련 금융상품 중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과 고소득자가 필요한 은퇴 관련 금융상품이 가장 부족함

■ 비은퇴자 중 세제적격 개인연금<sup>18)</sup>을 구매하고 싶은 비율은 11%에 불과했는데, 이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 시행 당시의 전망과 비교할 때 격차가 매우 큼

- 2018년 5월 중국 정부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23개 보험회사는 상하이(上海), 푸젠(福建) 및 수저우(蘇州)에서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판매하고 있음
-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 시행으로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자산규모가 최대 3.2조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0년 4월까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누적 수입보험료는 3억 위안에 불과함
- 홍보부족(60%) 및 복잡한 상품구조(30%)에 따른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낮은 인지도는 일반 소비자의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을 제약한 것으로 보임
  - 설문조사 대상자 중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들어본 적이 없는 비율과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르는 비율은 각각 61%, 30%를 기록함
- 다만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알고 나서 상품 내용과 가입조건이 합리적으로 생각되면 구매하고 싶다는 비율은 7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설문조사 대상자의 세제적격 개인연금

구분	내용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구매 의향	구매하고 싶지 않음(17.1%), 알고 나서 상품 내용과 가입조건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구매하고 싶음(72.2%), 구매하고 싶음(10.7%)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인지도 상황	잘 알고 있음(9.5%),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름(29.6%), 들어본 적이 없음(60.9%)

18)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매년 보험가입자에게 최대 2,400위안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상품임

## 5. 중국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최근 동향

- 2009년 중국 감독당국이 은행의 보험산업 진입을 허용한 후 주요 상업은행이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함
  - 2006년 중국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은행의 보험산업 진입을 허용함
  - 중국 주요 상업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고객의 보험수요 충족을 위해 방카슈랑스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생명보험회사의 인수를 추진함
  - 현재 중국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는 7개사가 있으며, 이들의 은행 주주는 각각 교통은행(BOCOM), 북경은행(BOB), 건설은행(CCB), 공상은행(ICBC), 농업은행(ABC), 초상은행(CMB) 및 중국은행(BOC)임

〈표 6〉 중국 은행계 생명보험회사 현황

인수 시기	보험회사	주요 주주
2010년 1월	BoComm Life	BOCOM(51%),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49%)
2010년 7월	BOB-Cardif Life	BOB(50%), Cardif(50%)
2011년 7월	CCB Life	CCB(51%), Taiwan China Life(19.9%), SSF(14.3%)
2012년 6월	ICBC-AXA Life	ICBC(60%), AXA(27.5%), Minmetals(12.5%)
2012년 11월	ABC Life	ABC(51%), Jiahe Life(49%)
2013년 3월	CIGNA & CMB Life	CMB(50%), CIGNA(50%)
2015년 8월	BOC-Samsung Life	BOC(51%), Samsung Life(25%), Air China(24%)

자료: 각 보험회사 회사소개자료

- 중국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는 모회사인 은행의 지원에 힘입어 방카슈랑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2010년 11월 중국 감독당국은 은행 지점이 3개사 이하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제한했으며, 보험자회사를 소유하는 상업은행들은 보험자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강화했음
  - 중국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들은 모회사의 대규모 은행고객과 브랜드 파워를 적극 활용함
    - 2019년 기준 중국 전체 은행 점포 수는 22.8만 개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상기 보

- 험자회사를 소유하는 상업은행은 대부분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음
- 신계약보험료 기준 중국 은행계 생명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5%에서 2019년 11.9%로 확대됨

〈표 7〉 중국 은행계 생명보험회사 신계약보험료 변화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방카슈랑스채널 총수입보험료	9,787	14,288	10,842	10,063	10,744
은행계 생명보험회사 신계약보험료	926	1,209	1,384	1,122	1,276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비중	9.5	8.5	12.8	11.2	11.9

주: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보험료는 China Post Insurance를 포함함  
 자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됨

- 2019년 8월 중국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채널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 해소 및 보험회사의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상업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방법」을 발표함
  - 불완전판매 문제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의 리베이트 지급 금지 및 법규 위반 시의 처벌 조치 강화와 같은 내용을 신설함
    - 보험회사는 자사 보험상품 확대를 위해 은행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방카슈랑스채널 관련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방카슈랑스채널의 판매직원에 대한 관리소홀,<sup>19)</sup> 1년 내 30인 이상의 민원 발생, 1년 내 100인 이상의 비정상적인 보험계약 사건 발생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채널 이용이 중지됨
  - 보험회사의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방카슈랑스채널에서 판매되는 보장성상품 및 장기상품의 하한선을 20%로 설정함
    - 방카슈랑스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부분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유니버셜보험 및 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하였음

19) 판매직원 지원자에 대한 부당 비용 수취, 판매직원의 비보험 금융상품 판매 등과 같은 문제임

- 방카슈랑스채널에서 판매되는 보장성상품 및 장기상품의 수입보험료가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표 8〉 「상업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업무진입	상업은행의 보험판매 필요조건, 정보 보고 등
경영규칙	보험사업 파트너 선택 시의 고려 사항, 보험판매 관련 업무 처리 방법, 판매수수료에 관한 내용 중 리베이트 지급 금지 명시, 은행직원에 대한 교육, 영업점포에 관한 요구사항, 은행직원의 보험판매 시 준수사항, 은행의 보험가입자 정보 관리방법, 보험판매 관련 정보를 감독당국으로 제출 내용, 보험소비자 민원의 처리 방법 등
업무퇴출	은행의 보험판매 영업허가증 취소 내용, 은행 점포의 보험판매 불허 내용 중 보험판매 관리혼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시정하는 것, 1년 내 30인 이상의 민원 또는 100인 이상의 비정상적인 보험계약 사건과 같은 내용을 신설, 보험판매를 하는 은행직원의 영업허가 취소 내용
감독관리	보험판매를 하는 은행에 대한 시정조치, 은행직원에 관한 처벌조치, 은행 고위관리자에 대한 처벌조치 등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상업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방법」

■ 이번의 새 관리방법으로 방카슈랑스채널의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지만, 방카슈랑스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계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새 관리방법이 방카슈랑스채널의 장기보험 판매를 장려하기 때문에 보험자회사를 소유하는 은행들은 은행고객의 가치 최대화를 위해 자회사의 보험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리베이트 지급 금지로 은행들은 보험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중소형 보험회사보다 대형 보험회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은행들이 보험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리베이트를 포함한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리베이트를 포함한 수수료 지급을 통해 방카슈랑스채널을 확보할 수 있었음
  - 리베이트 지급 금지로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브랜드 파워 및 은행고객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사에 밀릴 수밖에 없음

---

# [특집] 2019년 베트남 보험시장 및 규제 현황

---

## 1. 베트남 보험시장 현황<sup>1)</sup>

### 가. 보험시장 개요

- 베트남은 시장 개방에 따라 1994년에 민영 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함
  -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은 1996년에 외국계 보험회사와 베트남 국내사의 합작회사 설립하고, 1999년에 외국계 보험회사의 100%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 이에 따라 1999년 Prudential과 Manulife가 베트남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이후 본격적인 외국계 자본의 시장 진출이 확대됨
  
- 베트남 보험시장은 6년 연속 20%를 상회하는 성장으로 2019년 수입보험료 160.2조 VND과 총자산 454조 VND(Vietnam Dong)을 달성함
  -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67.3%, 32.7%를 차지함

---

1) 닛세이基礎研究所(2020. 1), “베트남보험시장(2018年版)”와 Vietnam Credit Ratings(2020. 4), “VIETNAM INSURANCE INDUSTRY REPORT 2020” 등을 기초로 작성함

〈표 1〉 베트남 보험시장 주요 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비중(2019년)

(단위: VND Tillion, %)

생명보험회사	2019년		손해보험회사	2019년	
	수입보험료	비중		수입보험료	비중
Bao Viet Life	21.5	25.0	Bao Viet	9.9	21.0
Prudential	19.2	22.3	PVI	6.9	14.7
Dai-ichi Life	11.5	12.2	PTI	4.2	8.9
Manulife	11.0	9.9	BaoMinh	3.5	7.6
Chubb	3.0	3.5	PJICO	2.8	6.0
Generali	2.3	2.7	VASS	2.7	5.8
Hanwha	2.1	2.5	BIC	2.0	4.4
AIA	1.5	1.7	MIC	1.9	4.1

자료: [https://vietnamcredit.com.vn/news/vietnam-insurance-industry-report\\_13822](https://vietnamcredit.com.vn/news/vietnam-insurance-industry-report_13822)

■ 2019년 말 현재 베트남 보험시장은 18개의 생명보험회사와 30개의 손해보험회사, 2개의 재보험회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 회사는 Bao Viet Life, Prudential, Dai-ichi Life 등의 생명보험회사, Bao Viet, PVI, PTI 등의 손해보험회사가 있음

■ 2020년 베트남 보험시장은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sup>2)</sup>

○ 성장요인은 가계 소득 증가와 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대형 보험회사의 투자 확대, 방카슈랑스 성장,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혁신적 보험상품 도입 등임

○ 베트남 재무부<sup>3)</sup>는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을 2019년 말 현재 8.5%에서 2020년 11%, 2025년 15% 목표로 민영보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나. 생명보험시장 현황

■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07.7조 VND(46.6억 달러) 규모임

○ 총자산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364.9조 VND이고, 책임준비금은 전년 대비 18% 증

2) Vietnam Credit Ratings(2020. 4), "VIETNAM INSURANCE INDUSTRY REPORT 2020"

3) The Ministry of Finance

가한 280조 VND 규모임

○ 종목별 수입보험료는 유니버설보험(44%)과 변액양로보험(43%)이 87%를 차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산업은 총 18개사 중에서 내국계 1개사와 외국계(합작사 포함) 17개사로 구성됨

○ 시장점유율은 전체 시장에서 Bao Viet Life, Prudential, Dai-ich life, Manulife 등 CR4가 약 70%를 차지함

○ 일본 Dai-ich life는 2007년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이 2012년 8%에서 2019년 12.1%로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 한화생명은 2008년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이 2012년 1.25%에서 2019년 2.5%에 그치고 있음

■ 생명보험시장 성장 요인은 청년 인구 증가, 도시화, 중산층 증가, 사회보장제도 부족, 높은 저축률, 다양한 상품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요약됨

○ 다만, 수입보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급락과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최저 준비금 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절반이 회계상으로 손실을 기록함

#### 다. 손해보험시장 현황

■ 2019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52.4조 VND(22.6억 달러) 규모임

○ 종목별 수입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의료·신체 보장보험, 재물보험, 화재폭발보험, 화물보험, 선박보험, 배상책임보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총자산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89.4조 VND 규모임

■ 손해보험시장은 Bao Viet, PVI, PTI, BaoMinh 등 CR4가 전체 시장에서 52.2%를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중소형사의 과열 경쟁 등의 영향으로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손해보험시장 성장 요인은 고도 경제성장, 중산층 가구 증가, 인프라 투자 확대,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요약됨

○ 종목별로는 화재폭발보험과 거래신용보험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하고, 재물보험이 20% 이상 성장함

■ 손해보험시장은 자동차보험 보급 및 확대와 가계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베트남은 자동차 보급 확대와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보장한도액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가계 소득 증가와 ASEAN FTA(2018) 체결에 따른 2020년 승용차 판매 대수 급증(20%)이 의료·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 라. 방카슈랑스시장 현황

■ 베트남 방카슈랑스 시장은 연평균 30%(2016~2019년) 성장하고 있음

○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 비중은 2014년 3%에서 2019년 30%로 급증함

〈표 2〉 베트남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연도	2014	2016	2017	2018	2019
점유율	3%	10%	13%	20%	30%

자료: Vietnam Credit Ratings(2020. 4), "VIETNAM INSURANCE INDUSTRY REPORT 2020"

■ 성장 요인은 베트남 중산층 인구 급증(2020년 3,300만 명)과 중산층의 보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요약됨

○ 또한, 높은 저축 수요 증가와 교육·퇴직·의료 보장 수요 증가, 산간벽지를 포함한 전국적 은행창구 이용의 편의성, 생명보험과 입출금 기능을 결합한 유니버설상품 수요 확대, 방카슈랑스 이용 시 대출 금리 우대 등에 따라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방카슈랑스 시장은 신흥아시아 시장보다 발전이 더디지만, 향후 높은 시장 성장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기회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신흥국의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 비중(2016년 기준)은 태국 45%, 말레이시아 38%, 인

도네시아 37%, 싱가포르 37%, 필리핀 35%, 베트남 10% 수준임<sup>4)</sup>

-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외국 자본과 베트남 국내 은행 간의 판매 계약 및 M&A가 확산하고 있음
  - 2019년 11월에 홍콩 FWD그룹이 Vietcombank Cardif Life(VCLI)를 인수하고, Vietcombank에 FWD 생명보험상품을 15년간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sup>5)</sup>
  - 2020년 11월에는 Sun Life 베트남과 ACB뱅크가 15년간 보험상품 독점 판매 협약을 체결함<sup>6)</sup>
-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들이 은행과 독점 제휴를 맺기 위해 수익의 2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등 후발 주자들에 의한 시장 혼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마. 판매채널 현황

- 주요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 법인대리점, 방카슈랑스 등으로 구성됨
  - 공식적인 통계가 없지만 채널별 판매비중은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보험설계사가 90%, 방카슈랑스가 10%를 차지함
  - 다만, 최근 지속적으로 방카슈랑스 시장 성장에 따라 보험설계사 판매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개인 보험설계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대리점과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보험설계사 수는 약 76만 명 중에서 개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47.4만 명,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28.6만 명임

4) Vietnam Credit Ratings(2020. 4), "VIETNAM INSURANCE INDUSTRY REPORT 2020"

5) <https://vietnamnewswire.com/banks-push-bancassurance-amid-low-credit-growth/>

6) <https://www.lifeinsuranceinternational.com/news/sun-life-bancassurance-deal-acb-vietnam/>

〈표 3〉 베트남 보험대리점 및 보험모집인 수 현황

연도	보험설계사(명)	법인대리점		보험설계사(명)
		대리점 수(개)	보험설계사(명)	
2017	321,774	768	320,106	641,880
2018	474,882	502	285,841	760,723

자료: 니ッセ이基礎研究所(2020. 1), “ベトナム保険市場(2018年版)”

## 2. 베트남 보험업법 주요 개정 내용

### 가. 보험업법 개요

■ 베트남은 2000년 12월에 보험업법<sup>7)</sup>이 제정되면서 민영 보험회사의 사업 영위와 외국 자본의 베트남 진출이 동 법에 의거하여 규제하게 됨

- 보험업법은 외국 자본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0년에 외국 자본 투자 한도 상향 조정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2006년 WTO 가입 시 약속한 시장 개방을 허용하기 위하여 2019년에 보험 보조 서비스(Insurance Ancillary Services) 규정이 신설됨

■ 베트남 보험업법은 제 I 장~제 IX 장으로 구성됨<sup>8)</sup>

- 제 I 장(일반 규정), 제 II 장(보험 계약), 제 III 장(보험회사), 제 IV 장(보험 대리점, 보험 브로커 기업), 제 V 장(재무, 회계, 계산 서류), 제 VI 장(외국기업에 의한 보험회사, 보험브로커 설립), 제 VII 장(국가의 보험업 관리), 제 VIII 장(표창, 벌칙), 제 IX 장(시행)으로 구성됨
- 이 중 제 II 장(보험 계약)은 우리나라의 보험계약법과 유사하게 보험계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18세 미만(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과 심신장애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금지하고 있음

■ 베트남 보험시장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재무부 산하의 보험감독청이 보험회사 등을 감독함

- 보험감독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보험회사 사업인가 신청 시 심사와 인가 등을 통하여

7) Law on Insurance Business

8) 니ッセ이基礎研究所(2017), “ベトナムの保険業法”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여 보험종목 규정, 지급여력 규정, 자산 운용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를 감독함

- 재무부는 보험회사의 파산 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의 0.1%를 납입 받아 운용하는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2014년에 신설함

## 나. 2019년 보험업법 개정 내용<sup>9)</sup>

■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무를 지원하는 의미의 보험 보조 서비스를 신설하고, 5가지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법 제3조)

- ① 보험 컨설팅(Insurance Consulting): 보험상품 등에 관한 컨설팅 행위
- ② 보험 리스크 평가(Insurance Risk Assessment): 보장하는 리스크 성격이나 범위 등에 대하여 특정·분류·평가하는 행위
- ③ 보험 수리 분석(Actuarial Analysis): 보험료나 준비금 등의 계산·분석을 하는 행위
- ④ 보험 손해 평가(Insurance Lossessment): 보험금 청구의 기초가 되는 상태, 원인, 손해 평가(Insurance Lossessment) 등을 하는 행위
- ⑤ 보험 청구 보조(Insurance Claim Assistance):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청구 절차 보조를 실시하는 행위

■ 보험 보조 서비스 제공 시 3가지 업무 원칙을 규정함(법 93a조 제1항)

- ① 성실성, 객관성, 투명성, 관계자의 정당한 권리·이익 보증
- ② 보험 보조 서비스 기준 및 기술적 규제 준수
- ③ 사회적·전문적 조직이 요구하는 윤리적 규율, 전문가 활동 준수 등임

■ 계약자 보호 및 이익상충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4가지 의무 사항을 규정함(법 제93a조 제3항)

- ① 고객정보에 관한 보호 의무
- ② 보험컨설팅 제공 시 전문가배상보험에 가입할 의무, 또한 보험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대해서 해당 활동(보험컨설팅 이외도 포함)별 전문가 배상보험에 가입할 의무

9)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20), “ベトナムの保険事業規制” 등을 기초로 작성함

③ 보조 서비스 제공 단체가 보험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보험금 수익자일 경우 이익상충 방지를 위해 보험손해평가와 보험청구 보조 업무 수행 금지

④ 보험 브로커는 자신이 취급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손해평가 금지

■ 보험 보조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규정함(법 제93b조 제1항)

○ 보험 컨설팅 제공자 자격은 국적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일 것, 보험 관련 대졸 이상 자격을 가질 것, 보험관련 대학졸업 자격이 없을 경우 대졸 이상 자격과 베트남 또는 해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보험 컨설팅 관련 교육 수료증이 요구됨

■ 보험 보조 서비스 제공 회사는 법적인 법인이어야 함(법 제93b조 제2항)

○ 서비스 제공 회사는 보험 컨설팅을 제공하는 개인(종업원)의 상기 조건을 확보하고, 기타 보험 보조 서비스 제공시 개인(종업원)이 베트남 또는 해외 교육기관이 부여하는 자격(qualification)을 확보해야 함(법 제93b조 제2)

■ 재무부는 상기 보조 서비스 제공에 관한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시험 절차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교육기관의 수료증을 인정함(법 제93b조 제3항)

○ 또한, 보조 서비스 제공자를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대리점으로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상기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9년 12월 31일 방카슈랑스 관련 시행규칙(No. 37/2019/TTNHNN)을 공포함

○ 동 시행규칙은 방카슈랑스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료 징수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포함하고, 온라인을 통한 방카슈랑스 영업을 처음으로 허용함

# [특집] 세계 재보험 현황

## 1. Global Reinsurance Companies

■ 2019년 총 보험료 기준 글로벌 재보험회사의 순위에서 Swiss Re가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 상위 10개 재보험회사가 재보험 수익의 69%를 창출함
- 전체 재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의 평균은 102.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p 하락함

〈표 1〉 글로벌 재보험회사 순위

(단위: USD million, %)

순위	회사	보험료		주주자본	비율		
		생명 및 손해	손해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1	Swiss Re	42,228	26,095	31,037	79.7	31.7	111.4
2	Munich Reinsurance Company	37,864	24,742	34,245	66.7	34.4	101
3	Hannover Rück	25,309	16,555	12,718	69	29.5	98.5
4	SCOR	18,302	8,005	7,139	68.1	30.9	99
5	Berkshire Hathaway	16,089	11,112	428,563	86.6	25.1	111.7
6	Lloyd's	14,978	14,978	3,915	71	34.5	105.5
7	China Re	13,161	5,218	13,881	65	36.4	101.4
8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12,150	11,297	11,601	N/A	N/A	N/A
9	Great West Lifeco	10,149	N/A	19,549	N/A	N/A	N/A
10	PartnerRe	7,285	5,792	727	72.4	28	100.4
11	Korean Re	6,963	6,157	2,124	85.9	14.9	100.8

자료: A.M. Best

## 2. Global Reinsurance Market Survey<sup>1)</sup>

### 가.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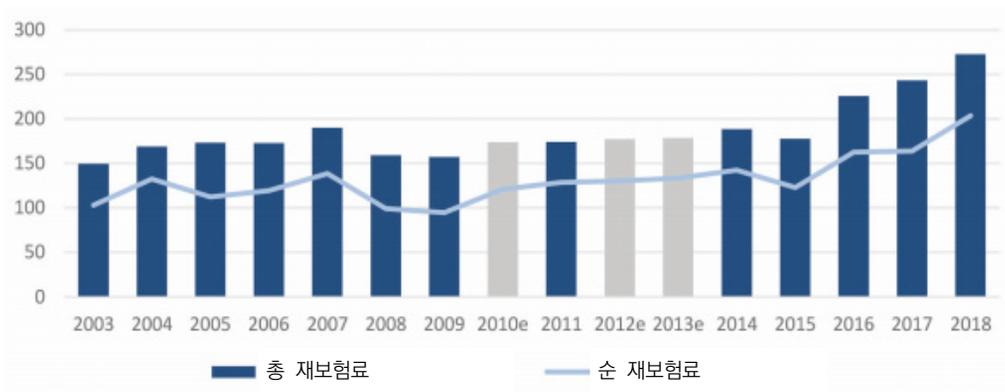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례 글로벌 재보험 시장조사를 실시함

○ 본 조사는 2003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2019년에는 9개 지역의 47개 재보험회사(2018년 조사 대상과 동일)를 대상으로 함

○ 본 조사는 비특수관계자와의 수재보험료(Gross Unaffiliated Reinsurance Premiums)가 8억 달러 이상인 재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자산 총액, 보험료, 지급청구권 및 충당부채, 자산 등급별 투자, 사업 수익성, 주주 지분, 가용 자본 및 최소 자본 요구사항 등을 조사함

〈그림 1〉 재보험료

(단위: USD billion, Year-end 2003~2018)



자료: 2019 IAIS Survey

### 나. 재보험료

■ 2018년 조사 재보험회사들의 총 재보험료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함

○ 순 재보험료는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나, 재재보험은 전년 대비 12.5% 감소함

1) IAIS(2020), "Global Insurance Market Report"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전년 대비 15%, 11%씩 증가하며 생명보험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 배상책임보험과 금융재보험(Financial Line)은 각각 전년 대비 30%, 27%씩 크게 증가한 반면 재산보험은 전년 대비 2%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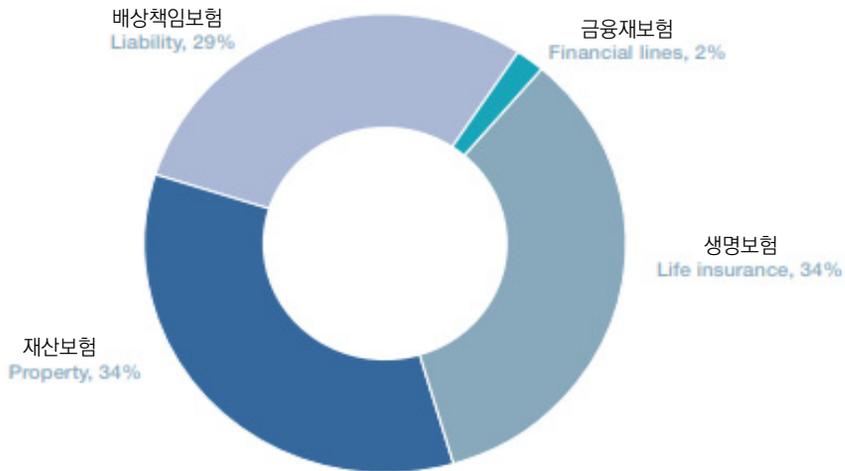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재보험회사들은 2018년 총 700억 달러를 재재보험에 출재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재보험료의 25% 수준임

- 생명보험은 전체의 36%, 재산보험(Property)은 전체의 64%를 출재하여 재산보험의 출재 비중이 높았음

■ 사업별로 총 수입보험료의 상대적 비중은 생명보험이 34%, 재산보험이 34%, 배상책임보험이 29%를 차지함

〈그림 2〉 재보험료

(단위: USD billion, year-end 2003-2018)



자료: 2019 IAIS survey

■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은 각각 전년 대비 19%, 7%씩 증가하였음

- 비례재보험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문은 전년 대비 33%의 증가를 보였던 재해보험과 전년 대비 11%의 감소를 보인 생명보험이었음

- 비비례재보험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문은 생명보험 부문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를 보임

〈그림 3〉 사업별 비례재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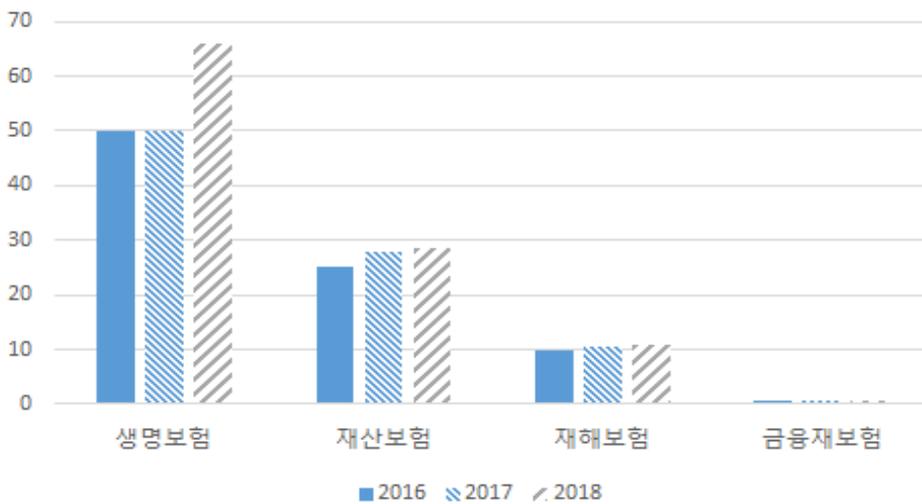
(단위: USD billion)



자료: 2019 IAIS Survey

〈그림 4〉 사업별 비비례재보험료

(단위: USD billion)



자료: 2019 IAIS Survey

### 다. 지역 간 재보험

- 2018년 재보험 출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북미 지역으로 총 1,688억 5,100만 달러였으며, 재보험 수재가 가장 많았던 지역 또한 북미 지역으로 총 1,530억 달러였음
  - 유럽 지역 재보험의 91%(538억 5,500만 달러)가 유럽 지역으로 출재되었으며, 북미 지역으로는 5%(30억 1,300만 달러), 아시아 지역으로는 1%(8억 1,000만 달러)가 출재되었음
  - 북미 지역 재보험의 84%(1,416억 2,600만 달러)가 북미 지역으로 출재되었으며, 유럽 지역으로는 33%(265억 9,500만 달러), 아시아 지역으로는 0.3%(22억 6,400만 달러)가 출재됨
  - 유럽 지역은 아시아와 호주, 아프리카와 중·근동, 중남미에서 출재된 보험의 각각 78%, 97%, 79%를 수재하였음
  
- 2018년 총 재보험료의 지역별 비중은 북미 지역이 60.7%로 가장 컸으며, 유럽 지역이 20.7%, 아시아·호주 지역이 11.3%로 뒤를 이었음

〈표 2〉 지역 간 재보험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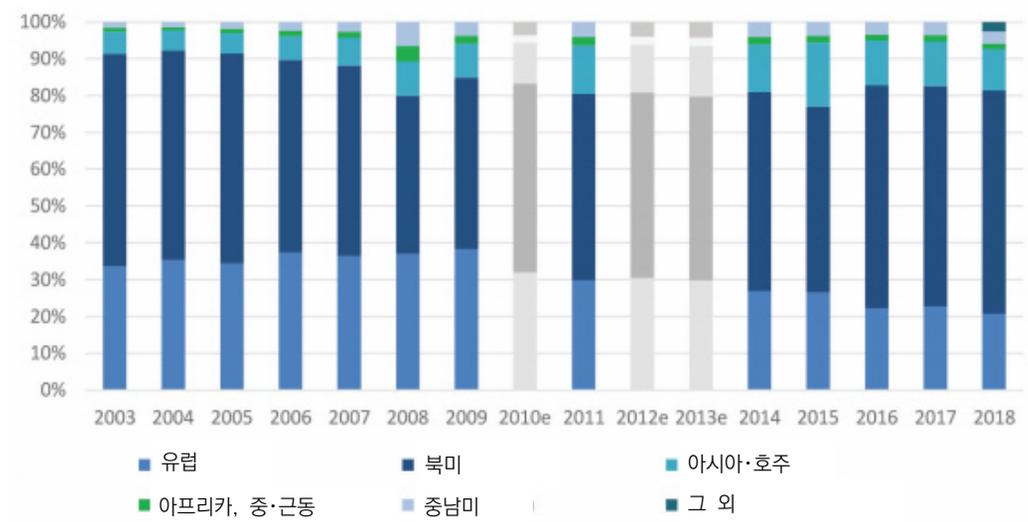
(단위: USD million, Year-end 2018)

출재 지역	수재 지역			총합
	북미	유럽	아시아	
유럽	3,013.95	53,855.76	810.38	58,680.08
북미	141,626.21	56,595.78	629.56	168,851.54
아시아·호주	4,813.23	24,379.44	2,264.51	31,457.18
아프리카, 중·근동	105.00	3,752.06	21.99	3,879.05
중남미	1,959.00	7,277.15	29.94	9,266.10
그 외	1,483.10	5,742.43	0.00	7,225.53
총합	153,000.48	121,602.62	3,756.39	278,359.48

자료: 2019 IAIS Survey

〈그림 5〉 지역별 재보험료

(단위: %)



자료: 2019 IAIS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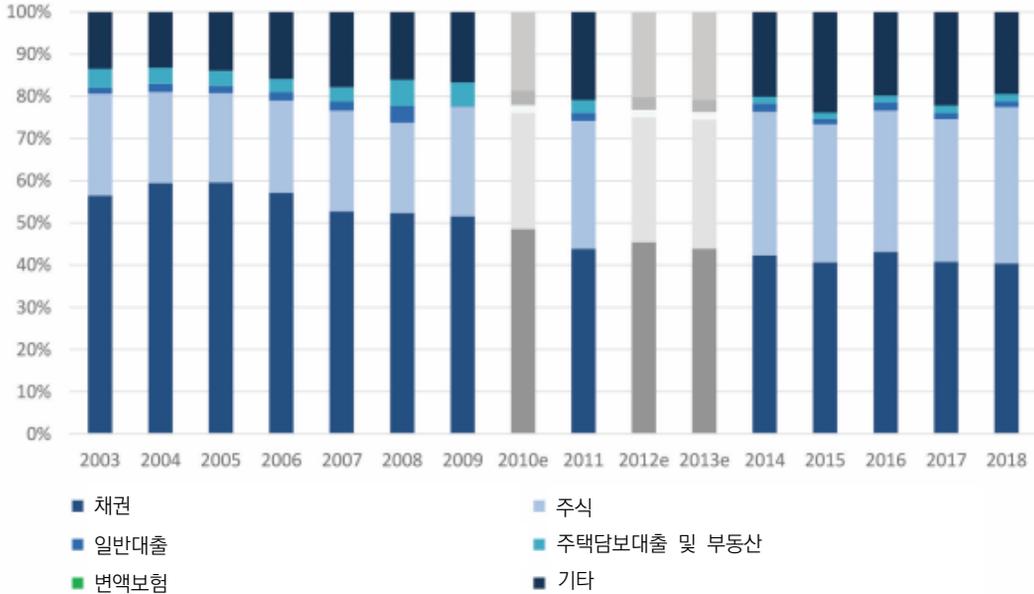
## 라. 투자자산

■ 글로벌 재보험회사가 보유한 투자자산은 2017년 8,800억 달러에서 2018년 9,010억 달러로 2.4%(210억 달러) 증가하였음

- 최근 몇 년간 재보험회사 자산 구성의 변화가 소폭 있었으나, 고정수익채권(Fixed-income Debt Securities)은 여전히 재보험회사 보유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18년 전체 자산 중 채권이 40%(2017년 대비 1.4% 증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식이 37%(2017년 대비 12% 증가)로 뒤를 이었음

〈그림 6〉 자산구성

(단위: %, Year-end 2003~2018)



자료: 2019 IAIS Survey

### 마. 수익성

- 재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은 2015년에 가장 높은 비율(115%)을 나타냈으며, 2007년에는 가장 낮은 비율(87%)을 나타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합산 비율은 2017년 99.3%에서 2018년 98.6%로 소폭 개선되었음

- 재보험회사의 운영 성과를 보여주는 사업비율(수재보험료 대비 사업비)은 30.2%로 전년 대비 3.3%p 증가하였으며, 손해율은 2017년 72.4%에서 2018년 68.4%로 소폭 개선됨

〈그림 7〉 합산비율

(단위: %, Year-end 2003~2018)



자료: 2019 IAIS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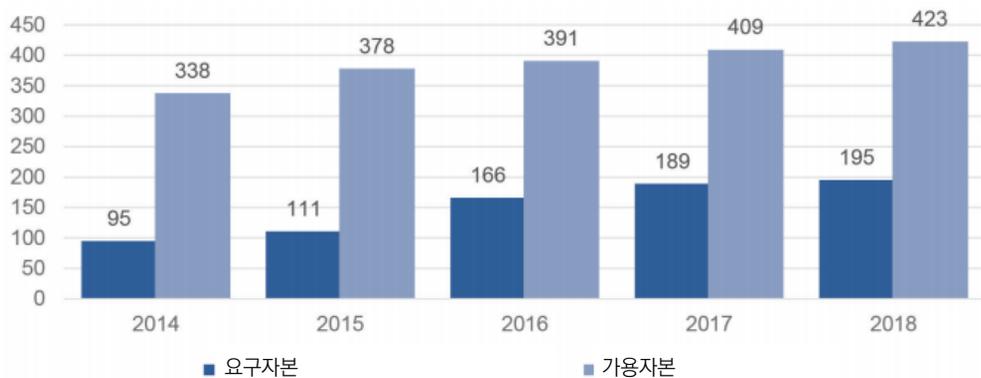
## 바. 자본적정성

■ 글로벌 재보험회사들은 2018년에도 탄탄한 자본력을 유지하였으며, 자본금 수준은 4,2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함

○ 반면 동 기간 요구자본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여 가용자본이 요구자본에 비해 2,280억 달러 많았음

〈그림 8〉 재보험회사 자본여력

(단위: USD billion, Year-end 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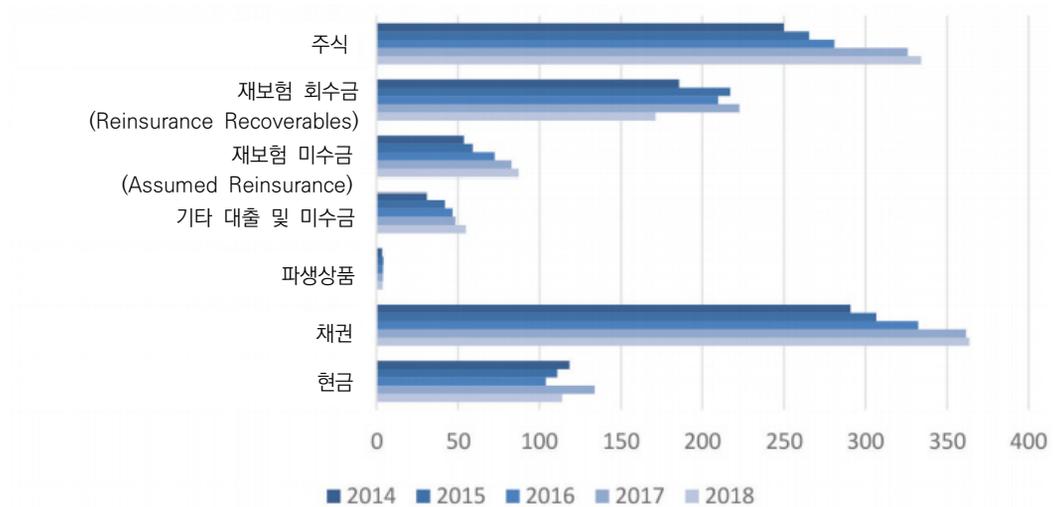
자료: 2019 IAIS Survey

### 사. 자산 및 부채

- 2018년의 총자산 익스포저<sup>2)</sup>는 전년 1조 1,790억 달러에서 1조 1,290억 달러로 4.3% 감소함
  - 전체 자산 익스포저의 32%를 차지하는 채권은 3,5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반면 현금은 1,1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고, 재보험 회수금(Reinsurance Recoverables)은 1,7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음
  - 전체 자산 익스포저의 30%를 차지하는 주식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340억 달러를 기록함
- 2014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주식과 채권은 모두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재보험 회수금(Reinsurance Recoverables)과 현금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 9〉 자산

(단위: USD billion, Year-end 2014~2018)



자료: 2019 IAIS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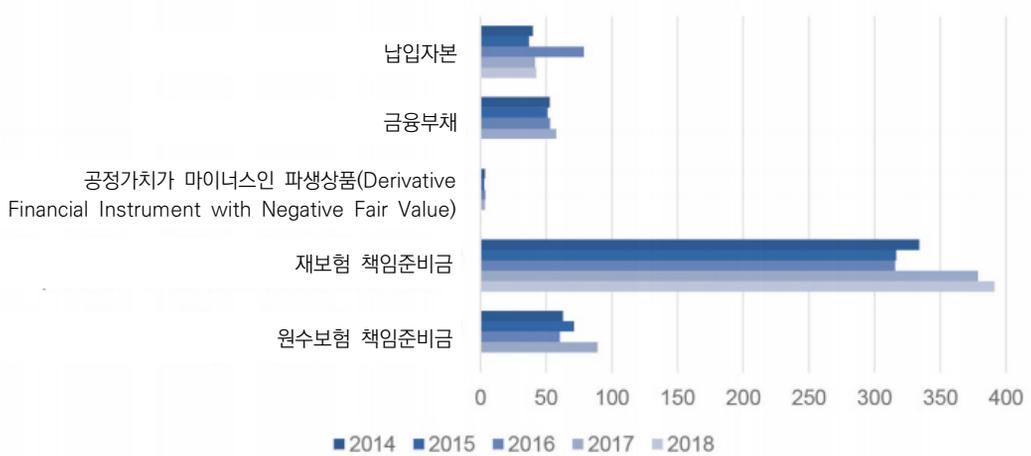
- 2019년 재보험 책임준비금은 전체 주요 부채 익스포저의 67%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3.4% 증가한 3,910억 달러를 기록함

2) 익스포저(Exposure)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함(금융감독용어사전, 금융감독원)

- 금융부채는 전체 부채 익스포저의 10%에 달하는 580억 달러, 납입자본은 전체의 7%에 달하는 42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림 10〉 부채

(단위: USD billion, Year-end 2014~2018)



자료: 2019 IAIS Survey

---

# [특집] 해외 판매채널: 중국, 대만

---

## 1. 중국 보험판매채널

### 가. 판매채널 종류<sup>1)</sup>

■ 중국 보험 판매채널은 크게 직접 및 간접 판매채널로 구분됨

- 직접 판매채널은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도 전화, 인터넷 및 우편물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 간접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회사<sup>2)</sup> 및 보험중개사가 있음

#### <직접 판매채널>

■ 보험회사의 직원은 직접 고객을 방문해 기업보험 위주로 판매하고 있음

- 일부 중국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보험중개회사를 설립했으며, 보험중개회사가 보험회사 직원과 경쟁관계를 형성했음
- 그러나 보험회사의 직원은 리베이트 지급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 보험중개회사와의 경쟁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됐으나 보험회사의 직원이 기업 고객과 보험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가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직원에 의한 직접 판매채널의 사업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대다수 보험회사는 보험 판매 직원을 채용할 때 개인 능력보다 인맥을 더 중요시함

---

1) 보험마케팅정보회사인 AXCO의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2) 중국의 보험대리회사는 한국의 독립보험대리점(GA)과 유사함

■ TM채널을 이용하는 중국 보험회사 수는 TM채널 규제강화 및 CM채널 부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음

○ 통화시간을 길게 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TM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이 짧고 상품구조가 간단한 상품에 집중되고 있음

- 현재 TM채널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 만기환급형 생명보험, 중대질병보험, 암보험, 입원 및 수술보장 건강보험 등이 있음
- TM채널을 통해 판매할 때 자필 서명을 대신해 음성 녹음을 고객에게 동의를 받고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보험증권을 교부함

○ 또한 보험회사는 TM채널을 통해 보험설계사채널이나 CM채널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2010년부터 TM채널을 이용하는 보험회사 수는 TM채널 민원 문제 해소를 위한 관련 규제강화로 줄어들기 시작함

- 2010년 및 2013년에 중국 감독당국은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도입 등 관련 조치를 도입함<sup>3)</sup>
- 현재 중국 보험회사는 보유고객 또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신규 고객에게만 전화할 수 있음
- 2019년 말 기준 TM채널을 이용하는 생명보험회사 수는 2014년 33개에서 22개로 크게 감소함<sup>4)</sup>

○ 한편, 보험회사 외에도 보험판매 허가를 받은 은행은 자사 콜센터를 통해 은행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 은행은 보험회사 콜센터에게 은행 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대다수 중국 보험회사는 CM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CM채널을 이용하는 방식은 ① 온라인 전문보험회사 설립, ② 자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 ③ 보험대리회사나 보험중개회사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④ 보험 판매 허가를 받은 IT 회사의 온라인 플랫폼<sup>5)</sup> 이용이 있음

3)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2010. 11), “保监会关于进一步加强财产保险公司电话营销专用产品管理的通”;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2013. 4), “人身保险电话销售业务管理办法”

4) 중국보험협회(2020. 3), “中国保险行业协会发布2019年度寿险电话营销行业发展形势分析报告”

5)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은 타오바오, 알리페이, 위챗 및 두쇼오만 등이 있음

- IT 회사<sup>6)</sup>의 온라인 플랫폼은 전체 CM채널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IT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임
- IT 회사는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해 보험회사에서 매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보험종목별 차이가 있지만 수수료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90%인 것으로 나타남<sup>7)</sup>
  -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IT 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을 구매한 고객이 보험회사에게 기여하는 수익은 크지 않지만, IT 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치한 고객에게 보험회사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중국 보험회사는 IT 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sup>8)</sup>
- CM채널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높은 의료보험 및 보험기간이 짧은 정기보험,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휴대폰액정파손보험, 항공자연보험 및 소포반송보험 등이 있음
  - 사망보험 및 가계성 손해보험 등 보험기간이 길거나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은 CM채널에서 잘 판매되지 않고 있음
- 2019년 기준 CM채널을 이용하는 중국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각각 61개 및 70여 개를 기록함<sup>9)</sup>

### 〈간접 판매채널〉

- 보험설계사채널은 1992년 미국 보험회사인 AIA Life가 중국 보험시장에 진입하면서 도입되었음
- 보험설계사채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판매채널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채널로 활용되고 있음
  - 보험설계사 수는 2013년 이후부터 종사자 학력이 기존의 중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

6) 대표적인 IT 회사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이 있음

7) 新华网(2019. 7), “财险全覆盖监管车险意外险是监管重点”

8) 이소양(2017. 2), 「중국 IT 기업의 보험사업 진출 현황과 전망」, 『KIRI 리포트』

9) 중국보험협회(2020. 3), “中国保险行业协会发布2019年度互联网人身保险市场运行情况分析报告”; “中国保险行业协会发布2014-2019年互联网财险市场分析报告”

조정되면서 증가 속도가 크게 느려졌지만, 2015년 이후부터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 폐지되면서 2015년 470만 명에서 2019년 90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함<sup>10)</sup>

- 대다수 생명보험회사의 장기납 생명보험은 보험설계사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음
  -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고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보장 및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설계사채널을 강화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채널을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는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 및 AIA Life가 있음

■ 중국의 보험대리회사는 전문보험대리회사 및 겸업보험대리회사가 있음

- 겸업보험대리회사는 은행, 우체국, 자동차4S점,<sup>11)</sup> 기업, 사회단체 등이 있음
- 중국에서 전문보험대리회사보다 겸업보험대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임

■ 전문보험대리회사는 영업지역에 따라 전국 전문보험대리회사 및 지방 전문보험대리회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문보험대리회사 수가 많지 않아 존재감이 크지 않음

- 전국 전문보험대리회사는 전국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 지방 전문보험대리회사는 법인 소속 지역에서만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 상위 전문보험대리회사를 제외한 대다수 전문보험대리회사는 전문성이 부족해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처럼 단순한 보험 판매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전국 전문보험대리회사 및 지방 전문보험대리회사 수는 각각 240개, 1,550개를 기록했음
- 대형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채널을 더 선호하여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 이용을 꺼리고 있으며, 중소형 보험회사는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을 이용하고 있지만 의존을 피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겸업보험대리회사는 전체 판매채널에서 존재감이 매우 높으며, 겸업보험대리회사 가운데 은행 및 자동차 4S점의 점유율이 가장 큼

10) 金融时报(2020. 8), “独立个人保险代理人制度呼之欲出,长期利好保险营销体制变革”

11) 자동차 4S점은 자동차 판매, 부품, 사후서비스, 설문조사 4가지 기능을 갖춘 유통매장을 의미함

- 은행채널은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 보험설계사채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판매채널이며, 대다수 생명보험회사들은 은행채널을 이용하고 있음
  - 보험자회사가 없는 은행은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수수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보험회사 자회사를 갖고 있는 은행은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자동차 4S점은 손해보험 판매채널에서 자동차보험 판매채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는 영업 허가를 받은 전문회사만이 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를 받은 자동차 4S점은 다른 판매채널보다 자동차 신규 구매자에게 자동차보험 판매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2018년 기준 겸업보험대리회사 수는 3만 2천 개를 기록했음

■ 보험중개회사의 존재감은 중국 보험시장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음

- 대다수 보험중개회사는 보험 판매 외에 제한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에서 보험중개회사의 주력 판매 상품은 기업보험 및 해상보험임

■ 교차판매 허용으로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을,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함<sup>12)</sup>

- 교차판매를 원하는 보험회사는 중국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교차판매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임
  - 교차판매 보험종목을 변경할 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됨
- 한 회계연도에 하나의 생명보험회사는 하나의 손해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하나의 손해보험회사는 하나의 생명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음
- 여러 개 보험계열사를 보유한 보험그룹의 경우 산하 보험계열사가 다른 보험계열사의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음

## 나. 판매채널 현황

■ 중국 감독당국은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를 발표하고 있지만, 전체 손해보험

12) 第一财经(2019. 9), “银保监会明确保险公司相互代理规则”

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는 발표하지 않고 있음

- 전체 손해보험회사에서 1위를 차지한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를 통해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를 파악할 수 있음

■ 중국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방카슈랑스채널의 비중이 2014년 이후 계속 90% 이상 수준을 유지함

- 직접 판매채널의 비중은 2014년 이후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중개회사의 비중은 계속 1%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직접 판매채널 가운데 CM채널의 비중은 2014년 2.7%에서 2017년 5.2%로 상승함<sup>13)</sup>

〈표 1〉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 변화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직접 판매채널	9.8	8.4	8.6	6.6
보험중개회사채널	0.5	0.5	0.5	0.7
보험설계사채널	50.0	49.1	45.4	51.8
방카슈랑스채널	39.8	42.0	45.5	40.9

자료: AXCO, Global Statistics

■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17년 기준 보험설계사는 35.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직접 판매채널, 전문보험대리회사, 겸업보험대리회사 및 보험중개회사의 순임

〈표 2〉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 변화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보험설계사	30.7	30.5	35.1	35.7
직접 판매채널	37.0	36.9	28.3	23.7
전문보험대리회사	6.2	8.6	13.3	18.4
겸업보험대리회사	20.6	18.8	18.3	16.5
보험중개회사	5.5	5.2	5.0	5.7

자료: AXCO, Global Statistics

13) 艾瑞咨询(2019. 6), “中国互联网保险行业研究报告”

### 다. 채널별 관련 규정

- TM채널과 관련된 규정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별로 따로 존재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TM채널과 관련된 규정은 「생명보험의 전화판매업무 관리방법」임
  - 손해보험회사의 TM채널과 관련된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전용상품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통지」,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전용상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및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시장질서 강화 및 무차별적인 TM채널 판매행위 금지」가 있음

〈표 3〉 생명보험회사의 TM채널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생명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업무 관리방법」 (2013년 4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진입: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기관의 콜센터만이 TM채널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보험회사의 TM채널 개설 조건 및 콜센터 설립 조건을 제시, TM채널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품 명시, TM채널 관련 정보 공개 요구 등</li> <li>- 판매행위: 고객정보 관리제도 수립, 전화판매 블랙리스트제도 수립, 콜센터 직원 교육 요구, TM채널 판매 용어 마련, TM채널 보험판매 절차 명시 등</li> <li>- 감독관리: 전화 호출 지역 소재 감독기구가 보험회사의 콜센터 설립에 대해 허가, 전화 수신자 소재 감독기구가 TM채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감독 등</li> </ul>

〈표 4〉 손해보험회사의 TM채널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전용상품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통지」 (2007년 4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의 TM채널 이용 범위, 판매가 가능한 상품 유형, TM채널 개설 시 필요한 절차, TM채널 이용 시 필요한 제도 수립, TM채널용 상품 개발 시 및 업무 과정의 주의사항, TM채널 업무 관련 홍보 방법</li> <li>- 감독당국의 감독 내용 및 처벌 방법</li> </ul>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전용상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011년 11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M채널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내부관리 강화, 경영행위 강화 내용</li> <li>- 고객서비스 수준 제고 요구</li> <li>- 과대홍보 및 과열경쟁행위 금지</li> <li>- 콜센터 신설 시 요구 조건 추가</li> <li>- TM채널 판매 과정에 인터넷 기술 이용 장려</li> </ul>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시장질서 강화 및 무차별적인 TM채널 판매행위 금지」 (2013년 1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센터 전화번호 통합 요구</li> <li>- 무차별적인 전화 호출 행위 금지</li> <li>- 고객 정보 보호 제도 수립 요구</li> <li>- 전화 호출 블랙리스트 신설 요구</li> <li>- TM채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방문 및 민원처리 제도 수립 요구</li> <li>- 콜센터 직원 교육 강화 필수</li> </ul>

■ CM채널과 관련된 규정은 「온라인보험업무 감독관리 잠정방법」임

- 동 잠정방법은 CM채널의 경영 조건 및 지역, 정보공개, 경영규칙, 감독관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5〉 CM채널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온라인보험업무 감독관리 잠정방법」 (2015년 7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조건 및 지역: 보험회사의 온라인업무에 필요한 조건, 직영 및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의 경영 조건, 온라인보험의 종류</li> <li>- 정보공개: 보험상품,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li> <li>- 경영규칙: 온라인보험업무 참여자의 책임, 상품관리, 보험료 수취, 거래기록, 고객서비스, 정보안전 등에 관한 감독 요구</li> <li>- 감독관리: 보험회사,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의 금지행위 및 시장퇴출에 대한 요구, 감독기구의 감독책임 및 방식</li> </ul>

■ 보험설계사, 전문보험대리회사 및 겸업보험대리회사를 포함한 보험대리인과 관련된 규정은 「보험대리인 감독규정」임

- 중국 감독당국은 과거에 보험설계사, 전문보험대리회사 및 겸업보험대리회사를 감독하는 규정을 따로 제정했지만, 2020년 11월에 감독제도를 정비하면서 통합 감독규정을 발표함
- 과거에는 보험설계사를 감독하는 「보험판매 종사자 감독 관리방법」, 전문보험대리회사를 감독하는 「전문보험대리회사 감독 관리규정」 및 「겸업보험대리회사 관리 잠정방법」이 있었음
  - 이번에 발표된 통합 감독규정은 보험대리인의 시장진입, 경영규칙, 시장퇴출, 감독관리 및 법적책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6〉 보험대리인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보험대리인 감독규정」 (2020년 11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진입: 업무허가(전문보험대리회사 및 겸업보험대리회사의 설립조건, 영업지역, 주주자격, 정보변경 등 포함), 임직자격(고위관리자의 자격), 종사자 관리(교육, 등록 등) 포함</li> <li>- 경영규칙: 영업장소 준수사항, 보험대리범위, 보험대리 준수사항, 보험설계사에 관한 관리, 금지행위 등</li> <li>- 시장퇴출: 영업허가 효력 상실 및 취소</li> <li>- 감독관리: 보험대리인에 관한 감독관리 주체, 감독관리 방법, 현장조사 등</li> <li>- 법적책임: 위규행위에 대한 처벌</li> </ul>

■ 방카슈랑스채널과 관련된 규정은 「상업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방법」임

- 동 관리방법은 시장진입, 경영원칙, 시장퇴출, 감독관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7〉 방카슈랑스채널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상업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방법」 (2019년 8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진입: 영업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조건, 영업허가증을 신청한 상업은행이 구비해야 할 정보시스템 조건, 영업허가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상업은행의 보험판매직원 관련 정보는 감독당국에 등록이 필수</li> <li>- 경영원칙: 보험판매 업무에 보험회사와 상업은행의 사전 계약이 필수, 상업은행의 보험판매 업무 수행 내용, 상업은행의 보험판매 직원 교육이 필수, 상업은행 점포 현장 업무 수행 내용 및 주의사항, 상업은행의 TM채널 및 인터넷채널 이용 시 주의사항, 은행 점포당 3개 이내의 보험회사 상품 판매 가능, 상업은행의 금지행위, 상업은행의 보험판매 관련 정보 보고가 필수</li> <li>- 시장퇴출: 영업허가증 취소 시의 조건, 상업은행의 보험판매업무 중지 조건, 상업은행의 보험판매 직원의 영업허가 취소 등</li> <li>- 감독관리: 감독당국의 감독 내용, 은행협회 및 보험협회의 역할, 관련 규칙 위반 시의 처벌 등</li> </ul>

■ 보험중개회사와 관련된 규정은 「보험중개인 감독규정」임

- 동 관리규정은 시장진입, 경영규칙, 시장퇴출, 업계자율, 감독관리, 법적책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8〉 보험중개회사와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보험중개인 감독규정」 (2018년 2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진입: 영업허가(설립조건, 영업지역, 주주자격, 정보변경 등 포함), 임직자격(고위관리자의 자격), 종사자 관리(교육, 등록 등) 포함</li> <li>- 경영규칙: 영업장소 준수사항, 보험중개범위, 보험중개 준수사항, 보험중개인에 관한 관리, 금지행위 등</li> <li>- 시장퇴출: 영업허가 효력의 연장, 상실 및 취소</li> <li>- 업계자율: 보험중개인 자율조직의 설립, 운영 및 자율규제 제정</li> <li>- 감독관리: 보험중개인에 관한 감독관리 주체, 감독관리 방법, 현장조사 등</li> <li>- 법적책임: 위규행위에 대한 처벌</li> </ul>

라. 현안 이슈

- 2020년 8월 중국 감독당국은 개인보험대리점 도입을 위해 「보험회사의 개인보험대리점 도입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를 발표함

- 이는 중국 감독당국이 개인보험대리점채널의 도입을 통해 보험설계사채널에 존재하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싶은 것으로 보임<sup>14)</sup>
  - 중국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조직이 피라미드형 구조로 되어 있어 보험판매 수수료의 대부분을 보험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조직 관리자가 가져가는 현상이 있음
  -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조직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전환되면서 보험판매 수수료의 전부를 가져갈 수 있게 됨
- 동 의견수렴안은 개인보험대리점의 개념, 선발기준, 보험회사의 지원방안 및 관리 및 감독관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9〉 「보험회사의 개인보험대리점 도입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보험회사의 개인보험대리점 도입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 (2020년 8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개인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차이점과 공통점</li> <li>- 선발기준: 개인보험대리점을 설립하는 사람이 구비해야 할 조건 등</li> <li>- 보험회사의 지원방안 및 관리: 개인보험대리점채널과 맞는 상품 개발, 수수료 지급방식, 사업등록, 납세에 대한 지원 요구, 개인보험대리점에 관한 관리제도 수립</li> <li>- 감독관리: 개인보험대리점에 관한 보고사항, 금지행위 등</li> </ul>

■ 2020년 9월 중국 감독당국은 CM채널을 규정하는 「온라인보험 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동 의견수렴안은 적용범위, 일반적인 경영규칙, 기관별 경영규칙 및 감독관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10〉 「온라인보험 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온라인보험 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 (2020년 9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범위: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 보험손해사정회사 및 온라인보험업무 영업허가를 받은 IT 회사</li> <li>- 일반적인 경영규칙: 온라인보험업무 경영조건, 판매관리 및 서비스관리</li> <li>- 기관별 경영규칙: 온라인전문보험회사, 일반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 보험손해사정회사 및 온라인보험업무 영업허가를 받은 IT 회사의 온라인보험업무 경영조건</li> <li>- 감독관리: 온라인보험에 관한 보고사항, 자율규제 등</li> </ul>

14) 新浪财经综合(2020. 8), “激辩独立个人代理人! 细数大小险企, 各类中介, 代理人的8类意见”

## 2. 대만 보험판매채널

### 가. 판매채널 종류<sup>15)</sup>

■ 대만 보험회사의 주요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회사,<sup>16)</sup> 보험중개회사, TM채널 및 CM채널 등이 있음

- 은행(또는 방카슈랑스채널) 및 자동차 판매회사는 보험대리 또는 보험중개 자격을 취득해야 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험통계는 보험대리회사 및 보험중개회사의 실적으로 집계됨

■ 보험설계사는 손해보험 판매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로 활용되고 있음

-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소속 회사에 따라 결정되며 모집과정에서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속 회사가 관련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보험설계사는 생·손보 교차 판매가 가능하며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및 보험중개회사 소속으로 활동함
- 보험설계사채널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은 주로 개인연금, 개인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이 있으며, 손해보험은 주로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에 집중되어 있음

■ 보험대리회사는 전문보험대리회사 외에도 보험대리 자격을 갖는 은행과 자동차 판매회사 등이 있으며,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로 활용되고 있음

- 보험대리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은행과 자동차 판매회사는 보험대리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금융감독위원회(FSC)의 허가를 받아야 전문보험대리회사처럼 복수 보험회사의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 전문보험대리회사, 보험대리 자격을 갖는 은행과 자동차보험판매회사는 모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됨
  - 개인도 보험대리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FSC의 허가를 받으면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15) 본 보고서는 AXCO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AXCO 자료에 없는 내용은 각주에서 출처를 기재함

16) 대만의 보험대리회사는 한국의 독립보험대리점(GA)과 유사함

- 손해보험대리회사는 손해보험과 건강보험을 판매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대리회사는 손해보험을 판매할 수 없고 손해보험을 구매하고 싶은 고객을 손해보험대리회사에게 소개할 수 있음
- 보험대리회사 자격을 갖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은 개인생명보험에 집중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대출은행이 수익자로 지정된 화재보험에 집중되고 있음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은행의 권유 때문에 화재보험에 많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sup>17)</sup>
- 대만 손해보험시장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판매되며, Hotai Motor 자동차 판매회사가 대표적인 자동차 판매회사임
  - Hotai Motor는 대만 자동차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대리회사로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함
  - 2016년 취리히보험회사(Zurich Insurance) 대만법인은 Hotai Motor에 인수된 이후 2017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51% 이상 증가함

■ 보험중개회사는 보험대리회사처럼 전문적인 보험중개회사 외에도 보험중개 자격을 갖는 은행과 자동차 판매회사 등이 있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판매채널에서 모두 중요한 채널로 활용되고 있음

- 전문적인 보험중개회사, 보험중개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은행과 자동차 판매회사는 보험중개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FSC의 허가를 받으면 복수 보험회사의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 전문적인 보험중개회사, 보험중개 자격을 갖는 은행과 자동차보험판매회사는 모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며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됨
  - 개인도 보험중개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FSC의 허가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중개 업무를 할 수 있음

■ TM채널은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크지 않음

-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및 보험중개회사는 콜센터를 통해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 위주로 판매함

17) 現代保險新聞網(2002. 1), “住宅火險, 銀行優先受償?”

- 생명보험회사의 콜센터에서 판매될 수 있는 생명보험은 전통 생명보험,<sup>18)</sup> 건강보험, 연금보험 및 상해보험<sup>19)</sup>이 있으며, 손해보험회사의 콜센터는 건당 연간 보험료가 5만 대만 달러 이하의 재산손실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을 판매함<sup>20)</sup>
- 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판매될 수 없음
- 2019년 2월 FSC는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화수신자가 거절 의사를 표명할 경우 콜센터 직원이 전화통화를 즉시 중지해야 된다고 규정함
- 미국 생명보험회사인 CIGNA Life는 대만에서 콜센터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정기보험, 입원보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대만 손해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으로 고객 정보 수집이 어려워지면서 콜센터의 이용이 크게 감소함
  - 대부분 생명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다른 자회사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고객 정보를 상대적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니어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워짐
  - 2017년 9월 기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불과 3개사(Hotai P&C, Chung Kuo P&C 및 Chubb Taiwan)에 그침<sup>21)</sup>

■ CM채널은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매우 작지만, 최근 들어 보험회사의 CM 채널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CM채널을 이용한 보험판매는 2014년 8월부터 허용됐으며 그 전까지 대만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에서 보험 홍보 자료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 양식 등 정보만을 게시함<sup>22)</sup>
  - 2017년 11월 보험회사의 스마트폰 어플에서 보험판매를 허용함<sup>23)</sup>
- CM채널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은 연금보험에 집중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CM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력 손해보험임

18) 전통 생명보험은 변액보험, 유니버설보험 및 금리변동형 보험을 제외한 보험을 의미하며, 보험회사는 콜센터를 통해 전통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지만 고객에게 3일의 보험계약 열람 시간을 제공해야 함

19) 보험가입금액은 600만 대만 달러로 제한되고 있음

20) FSC(2012. 4), “保險業保險代理人公司保險經紀人公司辦理電話行銷業務應注意事項”

21) ETtoday新聞雲(2017. 9), “產險電銷業務被壓縮轉型搭配電商求生存”

22) FSC(2014. 8), “金管會放寬保險業辦理網路投保業務”

23) FSC(2018. 2), “修正「保險業辦理電子商務應注意事項」”

- CM채널을 이용하는 대부분 생명보험회사는 카드사와 협력해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2017년 11월 FSC는 온라인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대리회사 및 보험중개회사의 CM채널을 이용한 보험판매를 허용했음
- 2020년 6월 FSC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와 협력하는 제3자 온라인플랫폼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허용함<sup>24)</sup>
  - 보험회사는 제3자 온라인플랫폼이 보험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관리해야 함

## 나. 판매채널 현황<sup>25)</sup>

■ 2014~2018년 보험설계사의 등록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설계사 수는 18만 405명에서 20만 2,044명으로 증가했으며, 손해보험설계사 수는 12만 8,652명에서 14만 2,935명으로 상승함

〈표 11〉 대만 보험설계사 등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생명보험설계사	등록 수	180,405	188,407	191,693	199,790	202,044	2.9
	증가율	6.5	4.4	1.7	4.2	1.1	-
손해보험설계사	등록 수	128,652	135,684	133,502	138,573	142,935	2.7
	증가율	2.1	5.5	-1.6	3.8	3.1	-
합계	등록 수	309,057	324,091	325,195	338,363	344,979	2.8
	증가율	4.6	4.9	0.3	4.0	2.0	-

자료: 보험사업발전센터(TII), 제리통계

■ 2013~2018년 보험대리회사는 등록 개수가 하락하고 있지만 총수입보험료와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sup>26)</sup>

- 2013~2018년 보험대리회사의 등록 개수는 312개에서 277개로 감소함
- 반면 보험대리회사의 총수입보험료는 3조 6,968억 대만 달러에서 10조 3,851억 대만

24) FSC(2020. 6), “發布修正「保險業辦理電子商務應注意事項」”

25) 대만 판매채널 현황에 소개된 통계 자료는 대만보험사업발전센터(TII)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됨

26) 여기서 소개된 보험대리회사의 개수와 실적은 보험대리 자격을 갖는 은행과 자동차 판매회사를 포함함

달러로 상승했으며, 시장점유율도 40.1%에서 58.9%로 확대됨

〈표 12〉 대만 보험대리회사 등록 개수 및 총수입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억 대만 달러, 만 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등록 개수	생명보험	103	104	99	92	84	-5.0
	손해보험	209	202	201	199	193	-2.0
	합계	312	306	300	291	277	-2.9
총수입보험료	생명보험	33,249	35,210	71,662	81,170	98,757	31.3
	손해보험	3,719	3,985	4,594	4,928	5,093	8.2
	합계	36,968	39,195	76,256	86,098	103,851	29.5
시장점유율	생명보험	12.0	12.0	22.9	23.7	28.1	-
	손해보험	28.1	29.3	31.5	31.4	30.8	-
	합계	40.1	41.3	54.3	55.2	58.9	-

자료: 보험사업발전센터(TII), 계리통계

■ 2014~2018년 보험중개회사의 등록 개수, 총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은 모두 하락하고 있음<sup>27)</sup>

○ 보험중개회사 등록 개수는 488개에서 476개로 감소했으며, 총수입보험료와 시장점유율은 각각 5조 8,838억 대만 달러, 40.0%에서 3조 8,062억 대만 달러, 24.5%로 하락함

〈표 13〉 대만 보험중개회사 등록 개수 및 총수입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개, 억 대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등록 개수		488	493	490	485	476	-0.6
총수입보험료	생명보험	56,228	56,610	39,227	34,702	35,691	-10.7
	손해보험	2,610	2,498	2,411	2,861	2,371	-2.4
	합계	58,838	59,107	41,637	37,563	38,062	-10.3
시장점유율	생명보험	20.3	19.3	12.5	10.1	10.2	-
	손해보험	19.7	18.3	16.5	18.3	14.3	-
	합계	40.0	37.7	29.0	28.4	24.5	-

자료: 보험사업발전센터(TII), 계리통계

27) 여기서 소개된 보험중개회사의 개수와 실적은 보험중개자격을 갖는 은행과 자동차 판매회사를 포함함

■ 최근 CM채널의 총수입보험료와 계약 건수는 모두 급증하고 있음<sup>28)</sup>

- 2019년 6월 기준 CM채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32개(생보사 17개, 손보사 15개)를 기록했으며 전체 42개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20개)에서 77%를 차지함
- 2019년 6월 기준 CM채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총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4.0%, 47.2% 증가한 17억, 6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음

〈표 14〉 CM채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총수입보험료 및 계약 건수(2019년 6월 기준)

(단위: 억 대만 달러, 만 건, %)

구분	생명보험		증가율	손해보험		증가율
총수입보험료	17		114.0	6.4		47.2
계약건수	24.6		16.4	109.7		222.1
총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 상품	금리변동형 연금보험	16	124.0	자동차보험	3.6	64.0
	여행자보험	0.6	102.8	이륜차보험	1.1	-8.0
	정기생명	0.03	28.5	여행자보험	1.0	21.0

자료: 經濟日報(2019. 7), “網路投保券上半年增114%”

#### 다. 채널별 관련 규정

■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규정은 「보험설계사 관리규칙」임

- 동 관리규칙은 보험설계사의 자격 취득과 등록, 교육, 모집행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15〉 보험설계사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보험설계사 관리규칙」 (2019년 3월 수정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취득과 등록: 만 20세와 고등학교 학력이 필요, 자격시험 통과, 보험협회와 소속회사에 등록이 필수, 유효기간이 5년</li> <li>- 교육: 매년 소속회사의 교육 이수가 필수</li> <li>- 모집행위: 업종이 다른 회사에 등록할 수 있지만 최대 1개의 업종이 같은 회사에 등록할 수 있음. 소속 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연대책임을 져야 됨. 소속 회사에 따라 영업범위가 결정</li> <li>- 처벌: 소속회사가 내부의 장려와 처벌 방법을 제정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감독당국도 보험설계사를 처벌할 수 있음</li> </ul>

28) 經濟日報(2019. 7), “網路投保券上半年增114%”

■ 보험대리회사와 관련된 규정은 「보험대리인 관리규칙」임

- 동 관리규칙은 자격요건, 개업 등록과 영업허가증 취득, 교육, 관리 및 외국보험대리인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16〉 보험대리회사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보험대리인 관리규칙」 (2019년 11월 수정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요건: 자격시험 통과, 보험대리회사 임직 불허 조건 명시</li> <li>- 개업 등록과 영업허가증 취득: 감독당국에 개업 등록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 보험대리회사 명칭에 ‘보험대리인’이 필수, 은행이 보험대리 자격을 신청 시 구비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제시, 개인이 보험대리인으로 개업 시 처리 방법을 제시</li> <li>- 교육: 입사 교육과 재직 교육 구분 및 실시가 필수</li> <li>- 관리: 보험대리 업무 수행 시 관련 규정 준수가 필수, 정보공개, 은행이 보험대리 업무 수행 시 요구사항 제시, 보험대리 업무 과정에 준수 사항 제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회사의 보험모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함. 보험대리인협회의 설립 및 운영과 감독, 보험대리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등</li> <li>- 외국보험대리회사: 설립 조건, 제출 서류, 자본요구 등</li> </ul>

■ 보험중개회사와 관련된 규정은 「보험중개인 관리규칙」임

- 동 관리규칙은 자격요건, 개업 등록과 영업허가증 취득, 교육, 관리 및 외국보험중개인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17〉 보험중개회사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보험중개인 관리규칙」 (2019년 11월 수정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요건: 자격시험 통과, 보험중개회사 임직 불허 조건 명시</li> <li>- 개업 등록과 영업허가증 취득: 감독당국에 개업 등록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 보험중개회사 명칭에 ‘보험중개인’이 필수, 은행이 보험중개 자격을 신청 시 구비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제시, 개인이 보험중개인으로 개업 시 처리 방법을 명시</li> <li>- 교육: 입사 교육과 재직 교육 구분 및 실시가 필수</li> <li>- 관리: 보험중개 업무 수행 시 관련 규정 준수가 필수, 정보공개, 은행이 보험중개 업무 수행 시 요구사항 제시, 보험중개 업무 과정에 준수 사항 제시, 보험회사가 보험중개회사의 보험모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함. 보험중개인협회의 설립 및 운영과 감독; 보험중개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등</li> <li>- 외국보험중개회사: 설립 조건, 제출 서류, 자본요구 등</li> </ul>

■ TM채널과 관련된 규정은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의 TM채널 보험모집 주의사항」임

○ 동 주의사항은 TM채널의 보험모집 유형, 개인정보 보호, 보험 유형, TM채널 보험 모집 과정의 녹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18〉 TM채널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의 TM채널 보험모집 주의사항」 (2019년 2월 수정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M채널의 보험모집 유형: 가입자가 TM채널에 보험 가입을 동의한 보험모집, 가입자가 가입 의지를 표명하고 보험회사가 인수를 동의한 보험모집, 청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의하고 보험회사가 인수를 동의한 보험모집</li> <li>-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보호</li> <li>- 모집 보험 유형: 생명보험은 전통 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및 상해보험, 손해보험은 건당 연간 보험료가 5만 대만 달러 이하의 재산손실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li> <li>- 보험모집과정 녹음: 녹음 내용은 가입자 신분 정보, 가입 의지 확인, 보험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대상, 수익자의 정보,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납입 방식과 보험기간 개시시점 등</li> </ul>

■ CM채널과 관련된 규정들은 다음과 같음

○ 2014년 8월 FSC는 보험회사의 CM채널을 통한 보험모집을 허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모집, 인수와 보험금 지급 방법」의 수정안 발표함

○ 또한 「보험회사의 CM채널 보험모집 주의사항」을 발표했으며, 「온라인보험의 시범약관 문서」, 「보험회사의 전자상거래업무 자율규제」, 「보험회사의 전자상거래 거래기록 저장과 내부통제 자율규제」의 수정안을 각각 발표함

○ 2015년 10월 온라인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 및 보험대리 또는 보험중개 자격을 갖는 은행의 CM채널 보험모집을 추가로 허용함

○ 2017년 10월 온라인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전자상거래업무 주의사항」을 발표함  
- 2020년 6월 규정내용이 수정되면서 보험회사와 협력하는 제3자 온라인플랫폼도 보험판매가 가능해졌음

〈표 19〉 CM채널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명	세부내용
「보험회사의 모집, 인수와 보험금 지급 방법」 (2014년 8월 수정 발표)	- 보험회사의 CM채널을 통한 보험모집을 허용
「보험회사의 CM채널 보험모집 주의사항」 (2014년 8월 발표)	- 보험회사의 CM채널 보험모집에 필요한 요건,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가입금액의 상한, 보험가입자의 회원가입과 신분확인, 보험모집·인수·보험료 납입과 전화 방문 등 사항을 명시
「온라인보험의 시범약관 문서」 (2014년 8월 수정 발표)	-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명시
「보험회사의 전자상거래업무 자율규제」 (2014년 8월 수정 발표)	- 보험회사의 CM채널 보험 모집의 신분 확인, 인수, 보험료 납입, 거래기록 저장, 내부통제, 감사 등 항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
「보험회사의 전자상거래 거래기록 저장과 내부통제 자율규제」 (2014년 8월 수정 발표)	- 전자보험증권의 정의를 명시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 및 보험대리 또는 보험중개 자격을 갖는 은행의 CM채널 보험모집 허용 계획」 (2015년 10월 발표)	-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 및 보험대리 또는 보험중개 자격을 갖는 은행의 CM채널 보험모집을 허용
「보험회사의 전자상거래업무 주의사항」 (2020년 6월 수정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8월 발표된 「보험회사의 CM채널 보험모집 주의사항」의 명칭은 「보험회사의 전자상거래업무 주의사항」으로 변경됨</li> <li>- 보험회사가 CM채널에서 보험증권 조회, 기본자본 변경, 문서 발급 신청, 약관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li> <li>- CM채널 판매가 가능한 보험 범위 확대: 개인책임보험, 골프 선수책임보험, 가전제품수리보험, 스마트장치도난보험, 실손건강보험 및 소액 노령자전용보험이 판매 가능</li> <li>- 보험회사와 협력하는 제3자 온라인플랫폼의 보험판매가 가능</li> </ul>

# [부록] 해외 보험산업 통계

## 1. 미국<sup>1)</sup>

### 가. 생명보험

■ 2020년 2/4분기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sup>2)</sup>는 유니버설보험, 종신보험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신계약 건수는 정기보험, 종신보험의 증가로 2.0% 증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분기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분	연납화 신계약 보험료			신계약 건수		
	2019	2020	증가율	2019	2020	증가율
1/4	2,578	2,588	+	1,442	1,425	-1.0
2/4	2,784	2,622	-5.0	1,430	1,414	2.0
3/4	2,667	-	-	1,348	-	-
4/4	3,461	-	-	1,394	-	-
합계	5,343	5,202	-3.0	2,841	2,857	1.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20년 2/4분기 변액유니버설보험,<sup>3)</sup> 정기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유니버설보험, 종신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1) 미국 보험산업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p. 71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2) 미국 보험시장의 규모는 신계약 연납화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연납화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정기납보험료의 합계임(연납화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3)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자 성과에 따라 해약환급금 규모가 변경되는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및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보험임

- 2020년 2/4분기 종신보험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유니버설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순서임
- 신계약 건수의 경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3% 증가하였으나,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4% 감소하였음
  - 신계약 건수의 비중은 정기보험이 45%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종신, 유니버설, 변액유니버설 순서임

〈표 2〉 2020년 2/4분기 미국 생명보험 상품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증가율	시장점유율	증가율	시장점유율
유니버설	-12.0	34.0	-15.0	11.0
변액유니버설	17.0	7.0	-4.0	1.0
정기	3.0	24.0	6.0	45.0
종신	-8.0	35.0	3.0	43.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20년 2/4분기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은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 은행의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씩 감소함
  - 개인독립대리점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9% 증가함
  - 직접판매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씩 증가함

〈표 3〉 2020년 2/4분기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전속대리점	-7.0	-5.0
교차판매대리점	-3.0	-2.0
증개사	0.0	6.0
개인독립대리점	3.0	9.0
Full Service Broker-Dealer	-9.0	-1.0
직접판매	12.0	12.0
은행	-27.0	-27.0
직급	-17.0	-24.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20년 2/4분기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를 살펴보면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정기보험은 독립설계사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종신보험은 전속설계사 비중이 가장 높음
-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의 독립설계사 비중은 각각 82%, 63%, 42%임
  - 종신보험의 경우, 전속설계사 비중은 62%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립설계사 비중이 높음

〈표 4〉 2020년 2/4분기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전속	독립	직접	기타	전속	독립	직접	기타
유니버설	17.0	82.0	0.0	1.0	32.0	66.0	1.0	1.0
변액유니버설	35.0	63.0	0.0	2.0	63.0	37.0	1.0	1.0
정기	27.0	42.0	7.0	14.0	45.0	31.0	9.0	15.0
종신	62.0	18.0	15.0	5.0	35.0	16.0	37.0	12.0
합계	39.0	49.0	7.0	5.0	39.0	28.0	21.0	12.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나. 손해보험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1,597억 달러를 기

록하였으며, 발생손해액은 1,08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함

○ 원수손해율은 68.1%로 전분기 대비 3.9%p 증가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sup>1)</sup>		2020	2020
		1/4	2/4
원수보험료	금액	164,356	159,690
	증가율	6.2	-0.4
발생손해액	금액	105,445	108,807
	증가율	3.6	-1.7
원수손해율		64.2	68.1
보험영업이익	금액	7,092	1,945
	증가율	18.2	333.2
계약자 배당금	금액	832	3,572
	증가율	7.2	1052.3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6,260	-1,627
	증가율	19.9	-1270.5
이자 및 배당수익	금액	13,177	12,343
	증가율	0.2	-10.1
실현자본이익	금액	1,092	-2,478
	증가율	-31.6	-191.5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4,269	9,864
	증가율	-3.3	-40.0
세전영업이익 <sup>2)</sup>	금액	19,448	10,703
	증가율	2.6	-24.6
당기순이익 <sup>3)</sup>	금액	17,887	6,390
	증가율	0.1	-57.2
자기자본 (Surplus) <sup>4)</sup>	금액	771,893	825,751
	증가율	-1.0	2.9
지급준비금	금액	655,034	669,798
	증가율	3.4	4.3
자기자본이익률 <sup>5)</sup>		8.8	3.2
합산비율		94.9	100.2

주: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이자 및 배당수익 + 기타이익

3) 당기순이익 = 세전영업이익 + 실현자본이익 + 세금

4)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보험계약자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임

5) 자기자본(Surplus)에 대한 이익률로 Rate of Return on Average Surplus로 표기함

자료: ISO(2020),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First-Half 2020"

- 손해보험산업의 2020년 2/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2% 감소한 64억 달러를 기록함
  - 2020년 2/4분기 총보험영업이익은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70.5% 감소함
  - 총투자영업이익은 40% 감소한 99억 달러임
    - 이자 및 배당수익은 1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함
    - 실현자본이익은 2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1.5% 감소함
  
- 2020년 2/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98.9%에서 1.3%p 증가한 100.2%,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 동기 7.5%에서 4.3%p 하락한 3.2%를 기록함

###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에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은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 와 의료공급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건강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 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산업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4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4개사	95%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20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2. 영국<sup>4)</sup>

### 가. 생명보험<sup>5)</sup>

####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 2020년 2/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sup>6)</sup>는 전년 동기 대비 42.5% 감소한 166억 7,000만 파운드를 기록함

- 투자 및 저축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5.3% 감소한 21억 6,820만 파운드임
  - 투자형 상품 신규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하여 실적이 크게 하락하였음
  - ISA 및 역외영업 실적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7%, 26.2% 하락하여 2/4분기 전체 투자 및 저축성보험의 신규보험료가 감소함
-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3억 4,750만 파운드로 전체 상품들 중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신규보험료의 증가가 나타남
- 연금상품<sup>7)</sup>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5.7% 감소한 118억 4,550만 파운드임
  - 신탁형 연금 신규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54.2% 감소한 62억 2,280만 파운드로 실적이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직장가입형 연금에서도 35.1%의 눈에 띄는 감소가 나타남

■ 2020년 2/4분기 퇴직소득보험<sup>8)</sup>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4.3% 감소한 23억 870만 파운드임

4)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p. 76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5) 영국 손해보험시장 실적은 연도별 자료만 발표되며, 2019년 데이터 출시 이후 업데이트 예정임

6)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7) 연금 상품은 근로자와 연금사업자 간 개인계약(Personal Contract-based)인 개인연금과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개인연금은 또 다시 개인의 보험료 부담형태에 따라 개인가입형(Individual Pension)과 직장가입형(Work-based Pension)으로 구분됨. 개인가입형 연금은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등이 있음. 직장가입형 연금은 보험료를 직장이 일정 부분 보조하는 형태로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Group SIPP 등이 있음. 신탁형 연금(Trust-based Pension)은 신탁에 근거한 연금으로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TIP(Trustee Investment Plan), Bulk Buyout 등이 해당됨

8)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소득 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 상품의 합계임

〈표 6〉 영국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상품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성보험 (Investments & Saving)	금액	3,129.0	3,351.8	3,605.4	3,278.1	13,364.3	3,349.0	2,168.2
	증가율 <sup>1)</sup>	-5.6	-6.5	8.1	4.5	-0.1	7.0	-35.3
	구성비	16.6	11.6	11.8	12.3	12.4	14.9	13.0
투자형 (Investment)	금액	982.4	1,018.3	988.8	928.8	3,918.3	904.2	468.5
	증가율	-8.9	-6.5	-10.5	-7.3	-8.3	-8.0	-54.0
	구성비	5.2	3.5	3.2	3.5	3.6	4.0	2.8
ISA	금액	1,291.4	1,520.5	1,713.6	1,411.6	5,937.0	1,608.3	1,100.0
	증가율	-6.4	-1.2	34.3	26.1	11.7	24.5	-27.7
	구성비	6.9	5.2	5.6	5.3	5.5	7.2	6.6
역외영업 (Offshore)	금액	851.9	809.3	899.4	933.7	3,494.4	832.7	597.4
	증가율	-0.2	-15.1	-5.2	-7.9	-7.3	-2.3	-26.2
	구성비	4.5	2.8	2.9	3.5	3.2	3.7	3.6
보장성보험 (Protection)	금액	331.2	318.3	283.3	269.1	1,201.9	339.0	347.5
	증가율	14.8	6.4	4.5	5.1	7.8	2.3	9.2
	구성비	1.8	1.1	0.9	1.0	1.1	1.5	2.1
연금 (Pension)	금액	12,054.4	21,826.9	23,236.4	19,821.7	79,654.8	15,605.2	11,845.5
	증가율	-49.4	48.6	37.1	21.2	9.5	29.5	-45.7
	구성비	64.1	75.2	75.7	74.6	73.9	69.6	71.1
개인가입형 (Individual)	금액	3,737.1	3,577.4	3,378.2	3,329.9	14,022.6	3,784.7	2,589.6
	증가율	-27.0	-19.6	-9.8	-12.1	-18.0	1.3	-27.6
	구성비	19.9	12.3	11.0	12.5	13.0	16.9	15.5
직장가입형 (Work-Based)	금액	3,086.2	4,670.0	3,605.0	3,584.5	17,661.1	3,912.4	3,033.1
	증가율	13.4	20.2	20.0	1.7	25.5	26.8	-35.1
	구성비	16.4	16.1	11.8	13.5	16.4	17.4	18.2
신탁형 (Trust-Based)	금액	5,231.1	13,579.5	16,253.1	12,907.3	47,971.1	7,908.1	6,222.8
	증가율	-67.3	113.7	59.5	42.7	15.3	51.2	-54.2
	구성비	27.8	46.8	53.0	48.6	44.5	35.3	37.3
퇴직소득보험 (Retirement Income)	금액	3,289.8	3,514.5	3,552.5	3,192.6	13,549.3	3,137.2	2,308.7
	증가율	1.9	-0.9	-2.3	-6.1	-1.9	-4.6	-34.3
	구성비	17.5	12.1	11.6	12.0	12.6	14.0	13.8
합계 <sup>2)</sup>	금액	18,804.4	29,011.6	30,677.5	26,561.4	107,770.3	22,430.3	16,670.0
	증가율	-38.7	31.2	26.8	14.7	6.6	19.3	-42.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체 자료는 ABI 데이터상 합계이며, 포함되지 않은 기타 자료는 위 표에 나타나 있지 않음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

■ 2020년 2/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sup>9)</sup>이 가장 높고,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sup>10)</sup> 無자문(Non-advised)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정기납 기준 독립 자문 형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3.7%p 증가한 78.9%임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독립 자문 형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보장성보험(96.4%), 직장가입형 연금보험(80.9%), 역외영업(69.6%) 순임
- 전체 정기납 기준 제한적 자문 형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6.1%p 감소한 11.7%임
  - 종목별로는 신탁형 연금보험(29.2%), 개인 가입형 연금보험(22.8%), 개인 보장성보험(21.0%)에서 제한적 자문 형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정기납 기준 無자문 형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7.6%p 감소한 9.5%임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성보험(86.5%)에서 無자문 형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역외영업(27.8%), 신탁형 연금보험(21.5%) 순임

■ 2020년 2/4분기 일시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일시납 기준 독립 자문 형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8.6%p 감소한 60.2%임
  - 종목별로는 종신연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독립 자문 형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외영업(79.6%), 직장가입형 연금보험(70.0%), 개인가입형 연금보험(69.7%) 순임
- 전체 일시납 기준 제한적 자문 형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3%p 증가한 17.0%임
  - 종목별로는 개인가입형 연금보험(23.4%), 투자 및 저축성보험(22.7%), 역외영업(20.4%)에서 제한적 자문 형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일시납 기준 無자문 형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6.2%p 증가한 22.8%임

9)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상품공급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특정 시장의 전체 상품을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10)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은 복수의 상품공급업자 상품을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종목별로는 종신연금보험(79.4%)에서 無자문 형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탁형 연금보험(49.7%), 직장가입형 연금보험(25.4%) 순임

〈표 7〉 2020년 2/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sup>1)</sup> (Restricted Advice)				無자문 <sup>2)</sup>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2019. Q2	2020. Q2	2019. Q2	2020. Q2	2019. Q2	2020. Q2	2019. Q2	2020. Q2	2019. Q2	2020. Q2	2019. Q2	2020. Q2
투자 및 저축성	0.0	0.0	65.3	54.1	25.1	13.5	24.7	22.7	74.9	86.5	10.0	23.2
개인가입형 연금	71.5	59.9	82.0	69.7	14.0	22.8	12.4	23.4	14.6	17.3	5.6	6.8
직장가입형 연금	64.3	80.9	79.8	70.0	18.3	10.9	4.4	4.6	17.5	8.2	15.8	25.4
신탁형 연금	67.3	49.4	43.6	49.9	15.9	29.2	1.8	0.4	16.9	21.5	54.6	49.7
역외영업	68.7	69.6	75.1	79.6	1.3	2.7	24.8	20.4	30.0	27.8	0.1	0.1
개인보장	56.8	58.2	-	-	24.4	21.0	-	-	18.9	20.8	-	-
그룹보장	94.8	96.4	-	-	0.2	0.1	-	-	5.0	3.5	-	-
종신연금	-	-	29.5	19.7	-	-	1.4	0.9	-	-	69.2	79.4
소득인출	-	-	64.0	58.6	-	-	17.7	19.8	-	-	18.3	21.6
전체 <sup>3)</sup>	65.2	78.9	68.8	60.2	17.8	11.7	14.7	17.0	17.1	9.5	16.6	22.8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 설계사를 포함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전체 정기납 합계 및 전체 일시납 합계 금액 대비 모집형태별 비중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 및 연도별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크게 4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므로 개인 보장성보험과 단체 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 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	투자 및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	개인가입형 연금
Work-based Pension	직장가입형 연금
Trust-based Pension	신탁형 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3. 일본

####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 FY2020 1/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9조 688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세가 확대되고,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도 감소로 전환됨
- FY2020 1/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26.8% 감소한 5조 6,413억 엔임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모두 확대됨

〈표 8〉 일본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FY2020
		4/4	1/4	2/4	3/4	4/4	1/4
수입보험료	금액	112,309	105,040	103,110	100,186	103,454	90,688
	증가율 <sup>1)</sup>	1.6	-1.0	-4.5	-6.3	-7.9	-13.7
생명보험	금액	89,033	80,096	78,567	73,487	79,927	66,197
	증가율	3.7	-2.2	-7.1	-12.2	-10.2	-17.4
손해보험	금액 <sup>2)</sup>	23,276	24,945	24,543	26,699	23,527	24,491
	증가율	-5.4	2.8	4.9	15.1	1.1	-1.8
지급보험금	금액	84,209	77,081	76,358	82,738	83,076	56,413
	증가율	1.8	-1.1	0.4	-5.0	-1.3	-26.8
생명보험	금액	68,310	64,323	64,035	63,863	67,694	44,515
	증가율	-1.9	-3.1	3.0	-3.8	-0.9	-30.8
손해보험	금액	15,899	12,758	12,323	18,875	15,382	11,898
	증가율	22.0	10.7	-11.2	-8.7	-3.3	-6.7

주: 1) 전년 동기 대비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2020년 12월 8일 기준)

## 나. 생명보험<sup>1)</sup>

### 〈신계약 가입금액〉

■ FY2020 1/4분기 생명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5% 감소한 9조 726억 엔임

- 개인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0% 감소한 7조 2,323억 엔이며, 개인연금보험 신계약 가입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59.5% 감소한 4,946억 엔을 기록함
- 반면, 단체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1조 3,406억 엔을 기록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신계약 가입금액

(단위: 억 엔, %)

구분 <sup>1)</sup>		FY2019					FY2020	
		1/4	2/4	3/4	4/4	연간	1/4	
개인형	개인보험	금액	129,176	123,920	120,461	123,615	497,172	72,323
		증가율 <sup>1)</sup>	-22.5	-24.6	-26.3	-28.4	-25.5	-44.0
		구성비 <sup>2)</sup>	84.7	84.1	81.9	83.4	83.5	79.7
	개인연금보험	금액	12,202	13,123	12,877	14,332	52,534	4,946
		증가율	0.9	-2.2	-8.1	6.1	-0.9	-59.5
		구성비	8.0	8.9	8.8	9.7	8.8	5.5
단체형	단체보험	금액	11,219	10,279	13,788	10,281	45,567	13,406
		증가율	-4.5	-14.1	22.5	-15.9	-3.5	19.5
		구성비	7.4	7.0	9.4	6.9	7.7	14.8
	단체연금보험	금액	3	1	1	0	5	51
		증가율	-25.0	-	-50.0	-100.0	-37.5	1,600.0
		구성비	0	0.0	0.0	0.0	0.0	0.1
합계	금액	152,600	147,323	147,127	148,228	595,278	90,726	
	증가율	-20	-21.6	-20.7	-23.7	-22.4	-40.5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구성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11)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2020년 9월부터 계약종목별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지 않으므로 개인·단체 보험·연금의 신계약 가입금액을 대상으로 분석함. 여기서 가입금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의미함

- FY2020 1/4분기 생명보험 지급률<sup>12)</sup>은 전년 동기 대비 13.1%p 감소한 67.2%를 기록함
-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한 6조 6,197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한 4조 4,515억 엔을 나타냄

〈표 10〉 일본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FY2020
		4/4	1/4	2/4	3/4	4/4	1/4
수입보험료	금액	89,033	80,095	78,567	73,487	79,927	66,197
	증가율 <sup>1)</sup>	3.7	-2.2	-7.1	-12.2	-10.2	-17.4
지급보험금	금액	68,130	64,323	64,035	63,863	67,694	44,515
	증가율	-1.9	-3.1	3.0	-3.8	-0.9	-30.8
지급률 <sup>2)</sup>		76.9	80.3	81.5	86.9	84.7	67.2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20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 392조 7,351억 엔에서 399조 9,508억 엔으로 증가함
- 운용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2.7%에서 2.3%로 하락하고, 총자산 대비 대출금의 비중도 전분기 7.7%에서 7.6%로 하락함
  - 한편, 매입금전채권, 부동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와 같은 0.5%, 1.5%임
- 주식, 외화증권의 증가로 총자산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81.9%에서 82.9%로 증가함
  - 주식, 외화증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4.8%, 25.0%에서 5.3%, 26.0%로 증가함
  - 반면 국채, 지방채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38.5%, 2.6%에서 38.2%, 2.5%로 감소함

1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표 11〉 일본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sup>1)</sup>

(단위: 억 엔, %)

구분	FY2019								FY2020	
	1/4		2/4		3/4		4/4		1/4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86,882	2.2	93,526	2.4	89,078	2.2	105,323	2.7	93,227	2.3
단기자금	14,579	0.4	18,309	0.5	19,043	0.5	21,088	0.5	17,937	0.4
매입금전채권	17,900	0.5	20,151	0.5	19,200	0.5	17,892	0.5	20,457	0.5
금전신탁	62,575	1.6	68,571	1.7	75,725	1.9	69,991	1.8	76,143	1.9
유가증권	3,230,989	82.8	3,257,836	82.5	3,302,538	83.0	3,218,383	81.9	3,314,656	82.9
- 국채	1,490,753	38.2	1,493,243	37.8	1,497,113	37.6	1,512,025	38.5	1,527,013	38.2
- 지방채	107,609	2.8	106,340	2.7	103,954	2.6	101,342	2.6	99,143	2.5
- 회사채	275,712	7.1	281,856	7.1	284,575	7.2	283,831	7.2	286,232	7.2
- 주식	208,056	5.3	213,210	5.4	231,718	5.8	187,662	4.8	210,450	5.3
- 외화증권	990,852	25.4	1,003,163	25.4	1,022,055	25.7	981,284	25.0	1,038,267	26.0
대출금	313,785	8.0	311,596	7.9	309,489	7.8	301,986	7.7	305,044	7.6
부동산	60,453	1.5	60,444	1.5	60,489	1.5	60,489	1.5	60,527	1.5
운용자산 <sup>2)</sup>	3,820,457	97.9	3,865,802	97.9	3,904,784	98.1	3,831,192	97.6	3,919,202	98.0
비운용자산	82,681	2.1	82,388	2.1	74,314	1.9	96,159	2.4	80,306	2.0
총자산 <sup>3)</sup>	3,903,138	100.0	3,948,190	100.0	3,979,098	100.0	3,927,351	100.0	3,999,508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20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3,990억 엔임

■ 자본이익률은 전분기에 비해 3.3%p 증가한 6.2%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이익률은 전분기 0.2%에서 0.4%로 증가함

○ 자본은 25조 9,127억 엔으로 전분기 대비 14.1% 증가하였고, 총자산도 전분기 대비 1.8% 증가한 399조 9,508억 엔을 기록함

〈표 12〉 일본 생명보험 실적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FY2020
		4/4	1/4	2/4	3/4	4/4	1/4
당기순이익	금액	6,357	3,708	3,445	3,441	1,666	3,990
	증가율 <sup>1)</sup>	38.1	-0.7	-21.5	15.4	-73.8	7.6
자본	금액	250,663	244,940	261,325	271,412	227,157	259,127
	증가율 <sup>2)</sup>	13.5	-2.3	6.7	3.9	-16.3	14.1
총자산	금액	3,877,946	3,903,138	3,948,190	3,979,098	3,927,351	3,999,508
	증가율 <sup>2)</sup>	1.0	0.6	1.2	0.8	-1.3	1.8
자본이익률 <sup>3)</sup>		10.1	6.1	5.3	5.1	2.9	6.2
총자산이익률 <sup>3)</sup>		0.7	0.4	0.3	0.3	0.2	0.4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3) 연율화 수치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다. 손해보험

### 〈원수보험료〉

■ FY2020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2조 4,491억 엔으로 집계됨

- 화재보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 2.1%, 1.6%, 1.2% 증가한 3,919억 엔, 200억 엔, 1조 853억 엔, 4,239억 엔을 기록함
- 해상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23.0%, 3.3%, 감소한 576억 엔, 1,998억 엔, 2,707억 엔으로 집계됨

〈표 13〉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sup>1)</sup>

(단위: 억 엔, %)

구분 <sup>2)</sup>		FY2019					FY2020
		1/4	2/4	3/4	4/4	연간	1/4
화재	보험료	3,893	4,811	4,341	3,997	17,043	3,919
	증가율 <sup>3)</sup>	9.7	18.8	3.3	3.4	8.8	0.7
	구성비	15.6	19.6	18.3	17.0	17.6	15.7
해상	보험료	594	519	499	514	2,125	576
	증가율	0.0	8.3	2.5	0.2	2.6	-3.0
	구성비	2.4	2.1	2.1	2.2	2.2	2.3
운송	보험료	195	172	181	182	731	200
	증가율	5.4	6.8	5.3	5.7	5.8	2.1
	구성비	0.8	0.7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10,682	10,228	10,366	10,576	41,853	10,853
	증가율	0.9	1.3	1.3	1.8	1.3	1.6
	구성비	42.8	41.7	43.7	45.0	43.3	43.5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595	2,452	2,292	2,313	9,653	1,998
	증가율	5.6	5.1	-5.8	-8.0	-0.9	-23.0
	구성비	10.4	10.0	9.7	9.8	10.0	8.0
상해	보험료	2,799	2,453	2,383	2,184	9,819	2,707
	증가율	-2.5	-0.6	8.2	-2.0	0.5	-3.3
	구성비	11.2	10.0	10.1	9.3	10.2	10.9
특종	보험료	4,187	3,907	3,636	3,760	15,490	4,239
	증가율	3.9	2.7	4.7	4.7	4.0	1.2
	구성비	16.8	15.9	15.3	16.0	16.0	17.0
합계	보험료	24,945	24,543	23,699	23,527	96,714	24,491
	증가율	2.8	4.9	2.2	1.1	2.7	-1.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지급률〉

- FY2020 1/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전년 동기 대비 2.5%p 감소한 48.6%를 기록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2조 4,491억 엔이며,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한 1조 1,898억 엔임

〈표 14〉 일본 손해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FY2020
		4/4	1/4	2/4	3/4	4/4	1/4
원수보험료	금액	23,276	24,945	24,543	23,699	23,527	24,491
	증가율 <sup>1)</sup>	-5.4	2.8	4.9	2.2	1.1	-1.8
지급보험금	금액	15,899	12,758	12,323	18,875	15,382	11,898
	증가율	22.0	10.7	-11.2	-8.7	-3.3	-6.7
지급률 <sup>2)</sup>		68.3	51.1	50.2	79.6	65.4	48.6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원수보험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20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분기 30조 6,480억 엔에서 28조 1,508억 엔으로 감소함
- 운용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7.2%에서 8.1%로 증가하였음
  - 또한, 매입금전채권, 대출금, 부동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분기 0.6%, 4.9%, 2.8%에서 1.0%, 5.3%, 3.1%로 각각 증가함
  - 한편,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신탁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와 같은 0.2%, 0.2%임
- 유가증권의 경우 국채, 주식의 감소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72.0%에서 65.2%로 하락함
  - 총자산 대비 국채, 주식은 각각 전분기 13.2%, 17.8%에서 12.8%, 7.5%로 하락함

- 반면, 지방채, 회사채, 외화증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1.1%, 9.3%, 29.1%에서 1.3%, 10.2%, 31.6%로 각각 증가함

〈표 15〉 일본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sup>1)</sup>

(단위: 억 엔, %)

구분	FY2019								FY2020	
	1/4		2/4		3/4		4/4		1/4 <sup>3)</sup>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20,754	6.7	24,437	7.8	20,803	6.6	22,076	7.2	22,941	8.1
단기자금	0	0.0	1	0.0	50	0.0	104	0.0	150	0.1
환매조건부채권	630	0.2	630	0.2	770	0.2	710	0.2	650	0.2
매입금전채권	2,893	0.9	3,313	1.1	2,785	0.9	1,866	0.6	2,858	1.0
금전신탁	590	0.2	632	0.2	624	0.2	535	0.2	553	0.2
유가증권	230,476	74.7	231,938	73.8	235,236	74.5	220,757	72.0	183,432	65.2
- 국채	45,583	14.8	45,309	14.4	44,299	14.0	40,585	13.2	35,997	12.8
- 지방채	3,204	1.0	3,303	1.1	3,345	1.1	3,306	1.1	3,653	1.3
- 회사채	27,487	8.9	28,127	8.9	28,539	9.0	28,525	9.3	28,833	10.2
- 주식	62,568	20.3	64,073	20.4	67,200	21.3	54,504	17.8	21,007	7.5
- 외화증권	88,176	28.6	86,595	27.5	87,021	27.6	89,168	29.1	89,080	31.6
- 기타증권	3,458	1.1	4,531	1.4	4,832	1.5	4,670	1.5	4,862	1.7
대출금	14,022	4.5	14,317	4.6	14,877	4.7	15,051	4.9	14,934	5.3
부동산	8,585	2.8	8,536	2.7	8,486	2.7	8,567	2.8	8,830	3.1
운용자산	278,009	90.1	283,874	90.3	283,630	89.8	269,667	88.0	234,348	83.2
비운용자산 <sup>2)</sup>	30,503	9.9	30,541	9.7	32,073	10.2	36,812	12.0	47,160	16.8
총자산	308,513	100.0	314,416	100.0	315,703	100.0	306,480	100.0	281,508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이며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임

3) 공개된 통계 부족으로 2020년 8월 말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부정기적으로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계약 가입금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형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형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형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 4. 중국<sup>13)</sup>

###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 2020년 2/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1조 49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함
  - 인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중국 정부의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회복되면서 전분기에 비해 상승함
- 2020년 2/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3,277억 위안임
  - 인보험 및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상승함
- 2020년 2/4분기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342억 위안으로 집계됨

〈표 16〉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9,215	8,983	8,125	42,645	16,695	10,491
	증가율 <sup>1)</sup>	11.2	8.3	10.5	12.2	2.3	13.8
인보험	금액	6,275	6,218	5,133	30,995	13,734	7,245
	증가율	12.1	8.5	11.9	13.8	2.7	15.5
손해보험	금액	2,940	2,765	2,991	11,649	2,962	3,245
	증가율	9.3	7.9	8.1	8.2	0.3	10.4
지급보험금	금액	2,914	3,179	3,483	12,894	3,031	3,277
	증가율	7.2	1.2	9.9	4.8	-8.6	12.5
인보험	금액	1,423	1,557	1,521	6,392	1,770	1,554
	증가율	5.7	-3.9	7.1	-0.1	-6.4	9.2
손해보험	금액	1,490	1,622	1,962	6,502	1,261	1,723
	증가율	8.5	6.6	12.3	10.3	-11.7	15.6
사업비	금액	1,268	1,256	1,699	5,491	1,246	1,342
	증가율	15.5	6.9	14.7	16.4	-1.7	5.8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13)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중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자산운용〉

- 2020년 2/4분기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1.2% 증가한 21조 9,792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20조 1,251억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3.6% 증가하였고, 비운용자산은 전분기 대비 19.2% 감소한 1조 8,541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으나 채권, 주식 및 기타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함
  - 예치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12.8%를 기록하였으나 총자산 대비 채권, 주식 및 기타 자산의 비중은 각각 전분기 30.7%, 11.5% 및 34.1%에서 31.7%, 12.2% 및 34.8%로 상승함

〈표 17〉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sup>1)</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2/4	3/4	4/4	연간	1/4	2/4
운용자산계	금액	173,672	177,772	185,271	185,271	194,255	201,251
	증가율 <sup>2)</sup>	1.8	2.4	4.2	12.9	4.8	3.6
	구성비	89.1	89.1	90.1	90.1	89.4	91.6
예치금	금액	26,335	25,213	25,227	25,227	28,621	28,152
	증가율	0.6	-4.3	0.1	3.5	13.5	-1.6
	구성비	13.5	12.6	12.3	12.3	13.2	12.8
채권	금액	59,830	61,427	64,032	64,032	66,765	69,700
	증가율	5.5	2.7	4.2	13.6	4.3	4.4
	구성비	30.7	30.8	31.1	31.1	30.7	31.7
주식 <sup>3)</sup>	금액	21,904	22,377	24,365	24,365	24,897	26,828
	증가율	3.7	2.2	8.9	26.8	2.2	7.8
	구성비	11.2	11.2	11.8	11.8	11.5	12.2
기타 자산 <sup>4)</sup>	금액	65,603	68,755	71,647	71,647	73,972	76,571
	증가율	-1.4	4.8	4.2	11.7	3.2	3.5
	구성비	33.6	34.4	34.8	34.8	34.1	34.8
비운용자산계 <sup>5)</sup>	금액	21,354	21,829	20,374	20,374	22,938	18,541
	증가율	4.0	2.2	-6.7	6.0	12.6	-19.2
	구성비	10.9	10.9	9.9	9.9	10.6	8.4
총자산	금액	195,026	199,601	205,645	205,645	217,193	219,792
	증가율	2.1	2.3	3.0	12.2	5.6	1.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 기준임  
 2) 전분기 대비임  
 3) 주식은 주식형 펀드를 포함함  
 4) 기타 자산은 부동산, 인프라시설 자산 등이 있음  
 5)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나. 인보험<sup>14)</sup>

### 〈수입보험료〉

- 2020년 2/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7,24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함
- 2020년 2/4분기 인보험 중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하락함
  -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8%, 17.5% 증가한 4,821억 위안, 2,119억 위안을 기록함
  -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30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함

〈표 18〉 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료	6,275	6,218	5,133	30,995	13,734	7,244
	증가율 <sup>1)</sup>	12.1	8.5	11.9	13.8	2.7	15.4
생명보험	보험료	4,164	4,227	3,591	22,754	10,798	4,821
	증가율	7.9	2.4	11.1	9.8	-0.6	15.8
건강보험	보험료	1,804	1,701	1,389	7,066	2,640	2,119
	증가율	23.7	29.1	25.0	29.7	21.5	17.5
상해보험	보험료	307	289	245	1,175	295	305
	증가율	10.6	1.8	0.0	9.2	-11.7	-0.7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14)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됨.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투자형 상품에는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있음. 중국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유사하며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음

〈지급보험금〉

- 2020년 2/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55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함
- 인보험 중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859억 위안, 614억 위안 및 8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19.0% 및 14.1% 증가함

〈표 19〉 인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금	1,423	1,557	1,521	6,392	1,770	1,554
	증가율 <sup>1)</sup>	5.7	-3.9	7.1	-0.1	-6.4	9.2
생명보험	보험금	837	865	726	3,743	1,165	859
	증가율	-9.1	-21.4	-9.2	-14.7	-11.4	2.6
건강보험	보험금	516	617	714	2,351	541	614
	증가율	42.8	37.0	30.0	34.8	7.3	19.0
상해보험	보험금	71	75	80	298	64	81
	증가율	11.1	6.3	10.5	11.3	-11.1	14.1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20년 2/4분기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51.9%로 전분기 대비 1.2%p 하락함
- 상위 5개사는 China Life, China Pingan Life, Qianhai Life, CPIC 및 New China Life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6.5%, 14.7%, 8.9%, 6.4% 및 5.3%임
- 한편, 나머지 생명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46.9%에서 48.1%로 상승함

〈표 20〉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sup>1)</sup>

(단위: %)

구분	2019			2020	
	2/4	3/4	4/4	1/4	2/4
상위 5사 점유율	52.6	54.9	53.7	53.1	51.9
나머지 회사 점유율	47.4	45.1	46.3	46.9	48.1

주: 1) 시장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당기순이익, 자본, 자본이익률〉

- 2020년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5.0%로 전분기에 비해 0.2%p 상승함
-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672억 위안에서 716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1조 4,077억 위안에서 1조 4,412억 위안으로 상승함

〈표 21〉 생명보험회사 실적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2/4	3/4	4/4	연간	1/4	2/4
당기순이익 <sup>1)</sup>	922	719	122	2,412	672	716
자본 <sup>2)</sup>	13,109	13,665	13,858	13,858	14,077	14,412
자본이익률	7.0	5.3	0.9	17.4	4.8	5.0

주: 1) 당기순이익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기말잔액 기준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sup>15)</sup>〉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3,24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함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 및 농업보험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기업재산보험, 가계재산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및 기타 보험의 비중은 하락함
- 자동차보험 및 농업보험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65.5%, 6.3%에서 66.0% 및 11.0%로 상승함
- 반면 기업재산보험, 가계재산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및 기타 보험의 비중은 각각 전분기 대비 1.7%p, 0.3%p, 0.1%p, 0.8%p, 1.5%p 및 0.8%p 하락한 4.1%, 0.7%, 1.3%, 7.3%, 5.2% 및 4.3%를 기록함

15) 중국은 원수보험료가 아니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발표하고 있음

〈표 22〉 손해보험 수입보험료<sup>1)</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료	2,940	2,765	2,991	11,649	2,962	3,24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업재산보험	보험료	118	106	67	464	173	134
	비중	4.0	3.8	2.2	4.0	5.8	4.1
가계재산보험	보험료	23	19	20	91	29	23
	비중	0.8	0.7	0.7	0.8	1.0	0.7
자동차보험	보험료	1,972	1,949	2,273	8,188	1,939	2,143
	비중	67.1	70.5	76.0	70.3	65.5	66.0
기술보험	보험료	29	25	21	118	42	41
	비중	1.0	0.9	0.7	1.0	1.4	1.3
책임보험	보험료	192	173	161	753	241	238
	비중	6.5	6.3	5.4	6.5	8.1	7.3
보증보험	보험료	183	255	216	844	199	170
	비중	6.2	9.2	7.2	7.2	6.7	5.2
농업보험	보험료	291	137	89	672	187	356
	비중	9.9	5.0	3.0	5.8	6.3	11.0
기타 보험 <sup>2)</sup>	보험료	132	101	144	519	152	140
	비중	4.5	3.7	4.8	4.5	5.1	4.3

주: 1) 종목별 수입보험료가 2019년부터 공개되기 때문에 종목별 수입보험료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음  
 2) 기타 보험은 운송보험, 특종보험 등이 있음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72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함

〈표 23〉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금	1,490	1,622	1,962	6,502	1,261	1,723
	증가율 <sup>1)</sup>	8.5	6.6	12.3	10.3	-11.7	15.6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3.7%로 전분기 대비 0.6%p 하락함

○ 상위 5개사는 PICC, China Pingan P&C, CPIC P&C, China Life P&C 및 China Continent P&C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2.6%, 19.7%, 10.4%, 6.4% 및 4.6%임

○ 한편, 나머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25.7%에서 26.3%로 상승함

〈표 24〉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sup>1)</sup>

(단위: %)

구분	2019			2020	
	2/4	3/4	4/4	1/4	2/4
상위 5사	71.3	75.9	71.3	74.3	73.7
나머지 회사	28.7	24.1	28.7	25.7	26.3

주: 시장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당기순이익, 자본, 자본이익률〉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2.7%를 기록해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157억 위안에서 151억 위안으로 하락하였으며, 자본은 전분기 5,793억 위안에서 5,526억 위안으로 하락함

〈표 25〉 손해보험회사 실적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2/4	3/4	4/4	연간	1/4	2/4
당기순이익 <sup>1)</sup>	230	110	101	548	157	151
자본 <sup>2)</sup>	5,325	5,466	5,724	5,724	5,793	5,526
자본이익률	4.3	2.0	1.8	9.6	2.7	2.7

주: 1) 당기순이익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기말잔액 기준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중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자산운용 분석을 위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 및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사용함
  - 보험회사의 그룹별 시장점유율, 당기순이익, 자본 및 자본이익률 분석을 위해 중국보험협회가 발표한 지급능력정보공개(償付能力信息披露)를 사용함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 및 손해보험을 종목별로 분석함
  - 인보험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손해보험은 기업재산보험, 가계재산보험, 자동차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농업보험, 기타보험(운송보험, 특종보험 등)으로 분류해 기술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 5. 호주

### 가. 총괄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 2020년 2/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약 175억 호주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소폭(0.8%) 증가함
- 2020년 2/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402.4% 증가한 약 687억 호주달러임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이 전년 동기 대비 642.8% 증가하였으나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소폭(0.9%) 감소함

〈표 26〉 호주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17,333	19,777	18,165	18,200	73,475	15,782	17,547
	증가율 <sup>1)</sup>	-4.9	-15.7	-8.8	-7.8	-9.7	-8.9	-11.3
생명보험	금액	8,025	7,691	7,411	7,073	30,200	6,033	5,369
	증가율	-12.1	-35.9	-25.3	-24.2	-25.2	-24.8	-30.2
손해보험	금액 <sup>2)</sup>	9,308	12,086	10,754	11,127	43,275	9,749	12,178
	증가율	2.3	5.4	7.5	6.9	5.6	4.7	0.8
지급보험금	금액	15,608	13,680	15,126	15,589	60,003	20,249	68,733
	증가율	13.8	-11.7	-3.9	-4.9	-2.2	29.7	402.4
생명보험	금액	9,524	8,571	9,653	9,560	37,308	13,183	63,669
	증가율	11.5	-24.0	-11.3	-8.3	-9.3	38.4	642.8
손해보험	금액	6,084	5,109	5,473	6,029	22,695	7,066	5,064
	증가율	17.6	21.1	12.8	1.0	12.3	16.1	-0.9

주: 1) 전년 동기 대비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호주 APRA

## 나. 생명보험

### 〈지급률〉

■ 2020년 2/4분기 생명보험 지급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74.6%p 상승한 1,186.0%를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0.2% 감소한 약 54억 호주달러였으나 지급보험금은 642.8% 증가한 약 637억 호주달러를 기록

〈표 27〉 호주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8,025	7,691	7,411	7,073	30,200	6,033	5,369
	증가율 <sup>1)</sup>	-12.1	-35.9	-25.3	-24.2	-25.2	-24.8	-30.2
지급보험금	금액	9,524	8,571	9,653	9,560	37,308	13,183	63,669
	증가율	11.5	-24.0	-11.3	-8.3	-9.3	38.4	642.8
지급률 <sup>2)</sup>		118.7	111.4	130.3	135.2	123.5	218.5	1,186.0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호주 APRA

### 〈자산운용〉

■ 2020년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 1,788억 호주달러에서 1,228억 호주달러로 감소함

○ 총자산 중株式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39.6%에서 17.1%로 하락함

○ 총자산 중 현금 및 예금, 채권, 부동산, 재보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4.2%, 40.7%, 3.6%, 6.2%에서 5.1%, 56.3%, 4.4%, 9.5%로 상승함

〈표 28〉 호주 생명보험회사 자산구성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2/4		3/4		4/4		1/4		2/4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8,162	4.2	7,783	3.9	7,561	3.9	7,454	4.2	6,306	5.1
투자자산	170,658	87.0	170,593	86.4	170,040	86.6	150,767	84.3	96,296	78.4
- 채권	72,936	37.2	73,960	37.4	73,665	37.5	72,747	40.7	69,139	56.3
- 주식	89,019	45.4	88,353	44.7	88,162	44.9	70,784	39.6	20,943	17.1
- 부동산	7,715	3.9	7,206	3.6	7,204	3.7	6,354	3.6	5,459	4.4
- 기타	989	0.5	1,075	0.5	1,009	0.5	882	0.5	756	0.6
기타자산	7,143	3.6	8,000	4.1	8,492	4.3	9,403	5.3	8,521	6.9
재보험자산	10,103	5.2	11,129	5.6	10,294	5.2	11,141	6.2	11,643	9.5
총자산	196,066	100.0	197,505	100.0	196,388	100.0	178,764	100.0	122,767	100.0

주: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임  
 자료: 호주 APRA

## 〈생명보험 실적〉

■ 2020년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1.9% 증가한 약 4.7억 호주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2020년 2/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23.4%p 증가한 8.4%를 기록함  
 ○ 자본은 약 223억 호주달러로 전분기 대비 4.3%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58.2% 증가함

〈표 29〉 호주 생명보험회사 실적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1/4	2/4
당기순이익	금액	512	201	-10	-997	-801	466
	증가율 <sup>1)</sup>	45.5	-62.5	-106.2	-735.2	-256.5	131.9
자본	금액	22,174	22,487	22,435	21,818	21,360	22,287
	증가율 <sup>2)</sup>	0.2	1.4	-0.2	-2.8	-2.1	4.3
총자산	금액	226,965	196,066	197,505	196,388	178,716	122,767
	증가율 <sup>2)</sup>	4.2	-13.6	0.7	-0.6	-9.0	-31.3
자본이익률 <sup>3)</sup>		9.2	3.6	-0.2	-18.3	-15.0	8.4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3) 연율화 수치임[(해당 분기 당기순이익 × 4) / 자본] × 100]

자료: 호주 APRA

## 다. 손해보험

### 〈원수보험료〉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약 122억 호주달러로 집계됨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기타 특종보험을 제외한 종목별 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과 기타 특종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와 36.3% 감소하였음
  - 기업성 재산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약 16억 호주달러로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임
- 가계성 보험이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42.1%를 차지함
  - 가계성 재산보험과 개인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가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2%, 21.9%를 기록함

### 〈손해율〉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 보유손해율<sup>16)</sup>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63%를 기록함
  - 2020년 2/4분기 기업성 재산보험과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보유손해율은 각각 90%와 97%를 기록함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p 상승한 89%를 기록함
  - 2020년 2/4분기 기업성 재산보험,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 특종보험의 합산비율은 각각 128%, 127%, 101%를 기록함

16) 보유손해율(Net Loss Ratio)이란 보유발생보험금(Net Incurred Claims)을 보유경과보험료(Net Earned Premium)로 나눈 값을 의미함

〈표 30〉 호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연간	1/4	2/4
가계성 재산보험	보험료	2,189	2,336	2,330	2,431	9,286	2,347	2,459
	증가율	3.9	5.4	6.5	4.9	5.2	7.2	5.3
	구성비	23.5	19.3	21.7	21.8	21.5	24.1	20.2
개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2,602	2,645	2,659	2,493	10,399	2,698	2,672
	증가율	4.9	5.0	6.0	3.1	4.8	3.7	1.0
	구성비	28.0	21.9	24.7	22.4	24.0	27.7	21.9
기업성 재산보험	보험료	823	1,484	1,315	1,452	5,074	912	1,651
	증가율	9.6	14.9	14.1	15.6	14.0	10.8	11.3
	구성비	8.8	12.3	12.2	13.0	11.7	9.4	13.6
상업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572	838	667	705	2,782	604	860
	증가율	4.4	5.1	7.2	4.0	5.2	5.6	2.6
	구성비	6.1	6.9	6.2	6.3	6.4	6.2	7.1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920	745	904	814	3,383	796	866
	증가율	-2.5	-17.5	-0.4	-0.5	-5.3	-13.5	16.2
	구성비	9.9	6.2	8.4	7.3	7.8	8.2	7.1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515	785	636	647	2,583	571	798
	증가율	2.6	8.4	5.3	6.1	5.9	10.9	1.7
	구성비	5.5	6.5	5.9	5.8	6.0	5.9	6.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265	819	596	744	2,424	372	943
	증가율	-8.0	8.9	38.0	26.1	17.6	40.4	15.1
	구성비	2.8	6.8	5.5	6.7	5.6	3.8	7.7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245	993	352	318	1,908	235	906
	증가율	0.4	12.6	8.6	0.0	7.9	-4.1	-8.8
	구성비	2.6	8.2	3.3	2.9	4.4	2.4	7.4
주택담보대출 신용보험	보험료	182	209	225	274	890	229	238
	증가율	-12.5	-8.7	2.3	20.2	0.6	25.8	13.9
	구성비	2.0	1.7	2.1	2.5	2.1	2.3	2.0
기타 특종	보험료	995	1,232	1,070	1,249	4,546	985	785
	증가율	-2.7	6.9	2.4	6.2	3.4	-1.0	-36.3
	구성비	10.7	10.2	9.9	11.2	10.5	10.1	6.4
합계	보험료	9,308	12,086	10,754	11,127	43,275	9,749	12,178
	증가율	2.3	5.4	7.5	6.9	5.6	4.7	0.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호주 APRA

〈표 31〉 호주 손해보험 보유손해율과 사업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4	3/4	4/4	1/4	2/4
가계성 재산보험	보유손해율	50	54	96	81	64
	사업비율	26	28	27	26	27
	합산비율	76	81	123	107	91
개인 자동차보험	보유손해율	71	68	75	76	48
	사업비율	18	21	19	19	20
	합산비율	89	89	94	95	68
기업성 재산보험	보유손해율	65	47	69	84	90
	사업비율	39	36	37	37	38
	합산비율	104	83	106	121	128
상업용 자동차보험	보유손해율	66	64	64	74	48
	사업비율	25	25	22	24	23
	합산비율	91	89	86	98	71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보유손해율	48	99	47	110	63
	사업비율	11	12	15	12	20
	합산비율	59	111	62	121	83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유손해율	81	76	59	95	97
	사업비율	27	31	25	30	29
	합산비율	108	107	84	125	127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유손해율	68	75	71	91	70
	사업비율	20	22	15	17	21
	합산비율	88	98	86	107	9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보유손해율	89	106	49	98	69
	사업비율	18	14	17	15	15
	합산비율	107	120	67	113	84
주택담보대출 신용보험	보유손해율	49	44	35	39	70
	사업비율	11	12	8	167	5
	합산비율	60	56	43	206	75
기타 특종	보유손해율	54	51	52	66	57
	사업비율	38	42	38	37	44
	합산비율	92	93	90	103	101
합계	보유손해율	63	66	69	85	63
	사업비율	24	26	24	27	26
	합산비율	87	92	93	112	89

주: 보유손해율(Net Loss Ratio)이란 보유발생보험금(Net Incurred Claims)을 보유경과보험료(Net Earned Premium)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호주 APRA

〈자산운용〉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전체 운용자산은 전분기 703억 호주달러에서 704억 호주달러로 소폭 상승함

○ 2020년 2/4분기 채권형 운용자산이 손해보험 운용자산의 7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채권형 운용자산에 이어 간접투자자산의 비중은 15.8%, 대출채권 3.3%, 주식형 자산 1.2%, 부동산 0.2%임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은 3.9%로 전년 동기 대비 3.2%p 감소함

○ 손해보험회사의 직접투자자산 운용수익률은 3.2%이며, 간접투자자산의 운용수익률은 7.7%로 나타남

〈표 32〉 호주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2/4		3/4		4/4		1/4		2/4	
	금액	구성비								
채권형 운용자산	54,549	78.1	53,981	77.9	54,429	77.5	55,496	78.9	55,553	78.9
-현금 및 예금	4,226	6.1	4,410	6.4	4,405	6.3	5,086	7.2	4,546	6.5
-회사채	15,907	22.8	15,130	21.8	13,938	19.8	13,528	19.2	13,534	19.2
-국채	21,997	31.5	21,918	31.6	22,956	32.7	23,777	33.8	22,996	32.7
-기타 유가증권	12,420	17.8	12,524	18.1	13,129	18.7	13,105	18.6	14,477	20.6
주식형 운용자산	1,460	2.1	1,407	2.0	1,324	1.9	939	1.3	859	1.2
-상장 후순위 채권	279	0.4	280	0.4	283	0.4	243	0.3	275	0.4
-비상장후순위 채권	245	0.4	238	0.3	227	0.3	43	0.1	44	0.1
-상장주식	862	1.2	816	1.2	739	1.1	577	0.8	482	0.7
-비상장주식	73	0.1	73	0.1	75	0.1	76	0.1	59	0.1
간접투자자산	11,059	15.8	10,900	15.7	11,100	15.8	10,714	15.2	11,122	15.8
-현금 및 예금	1,790	2.6	1,042	1.5	1,094	1.6	1,747	2.5	2,775	3.9
-채권	5,832	8.4	6,381	9.2	6,175	8.8	5,599	8.0	5,611	8.0
-주식	2,041	2.9	2,095	3.0	2,391	3.4	1,964	2.8	1,506	2.1
-부동산	935	1.3	918	1.3	961	1.4	947	1.3	916	1.3
-기타	460	0.7	465	0.7	478	0.7	457	0.6	314	0.4
부동산	111	0.2	113	0.2	119	0.2	117	0.2	116	0.2

〈표 32〉 계속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2/4		3/4		4/4		1/4		2/4	
	금액	구성비								
대출채권	2,197	3.1	2,435	3.5	2,855	4.1	2,609	3.7	2,328	3.3
기타자산	450	0.6	441	0.6	435	0.6	435	0.6	436	0.6
운용자산	69,827	100.0	69,277	100.0	70,261	100.0	70,310	100.0	70,415	100.0
투자수익률	7.1	-	4.7	-	0.0	-	-0.5	-	3.9	-
-직접투자수익률	6.9	-	4.7	-	-0.4	-	3.2	-	3.2	-
-간접투자수익률	8.1	-	5.2	-	2.1	-	-20.5	-	7.7	-

자료: 호주 APRA

〈손해보험 실적〉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6% 감소한 약 7.8억 호주달러를 기록함

■ 2020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29.9%p 증가한 13.3%를 기록함  
 ○ 자본이 약 233억 호주달러로 전분기 대비 4.0%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83.4% 증가함

〈표 33〉 호주 원수손해보험회사 실적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1/4	2/4	3/4	4/4	1/4	2/4
당기순이익	금액	555	1,332	821	63	-933	778
	증가율 <sup>1)</sup>	34.4	-5.9	-15.4	-62.9	-268.1	-41.6
자본	금액	23,245	24,349	23,865	23,424	22,447	23,348
	증가율 <sup>2)</sup>	0.4	4.7	-2.0	-1.9	-4.2	4.0
총자산	금액	111,425	114,629	114,017	115,645	118,275	120,986
	증가율 <sup>2)</sup>	0.9	2.9	-0.5	1.4	2.3	2.3
자본이익률 <sup>3)</sup>		9.6	22.4	13.6	1.1	-16.6	13.3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3) 연율화 수치임[(해당 분기 당기순이익 × 4) / 자본] × 100]

자료: 호주 APRA

## 조사 개요 및 출처

- 호주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 퇴직연금(Superannuation),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다룸
- 호주의 생명보험상품은 호주의 소득보장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음
  - 호주의 생명보험상품은 소득보장체계<sup>17)</sup>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소득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65세 이전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민간 소득보상상품을 통해 영구적·일시적으로 소득을 보장받음
  - 개인연금도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개인연금 보험료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 포함하지 않음
    -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사용자가 납부한 부분은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분류됨
    - 퇴직연금의 사용자 법정기여율은 9.5%(2020년 기준)이며, 2025년에는 사용자의 법정기여율이 12%까지 상승할 예정임
- 본고에서는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호주 APRA는 생명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보험료만 나타냄
    - 호주는 90년대부터 저축성 상품을 판매를 하지 않아 생명보험상품의 대부분이 보장성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17) 호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3층 체계(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운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윤아·한성원 2020.1
- 2020-2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 김세중·김혜란 2020.4
- 2020-3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설계사의 지위와 조직운영 / 정봉은·이창성 2020.8
- 2020-5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 황인창·김해식·이승준·김동겸·안소영 2020.9
- 2020-6 보험영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법인보험대리점 혁신방안 / 정세창·김대환 2020.9
- 2020-7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 한상용·문혜정 2020.10

###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역·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량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역·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량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2020-2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김동겸 2020.3  
 2020-3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6  
 2020-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 이상우 2020.6  
 2020-5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강성호·정인영 2020.7  
 2020-6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 김석영·이소양 2020.8  
 2020-7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 양승현 2020.9  
 2020-8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윤성훈 2020.9

##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유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2018-3 주유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2020-1 공제보험 현황 조사 / 최창희·홍민지 2020.4

##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20 / KIRI, 2020.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 KIRI, 2020.2
제3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9/ KIRI, 2020.5
제3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20/ KIRI, 2020.9

##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 2020-1 코로나 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4
- 2020-2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20.6
- 2020-3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20.7
- 2020-4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 조용운 2020.8
- 2020-5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 김해식·노건엽·황인창 2020.9
- 2020-6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 - 사회안전망 / 정성희·송윤아·강성호·기승도·장윤미 2020.9
- 2020-7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V) - 보험분쟁과 법제 / 황현아·손민숙 2020.9
- 2020-8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I) - 소비자 중심 경영 / 변혜원·김석영·손재희·정인영 2020.10
- 2020-9 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 / 김세중·김유미 2020.11

- 2020-10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 / 김세중·김혜란 2020.11  
 2020-11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윤성훈 2020.11  
 2020-12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V) - 상품 및 채널 / 김동겸·김석영·정인영 2020.12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 간행물

---

- 보험동향 / 연 4회
- 해외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도서회원 가입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해외 보험동향</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해외 보험동향</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해외 보험동향</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li> </ul>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해외 보험동향』 2020년 겨울호 (통권 4호)

---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

ISSN 2714-0482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글로벌보험센터(☎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